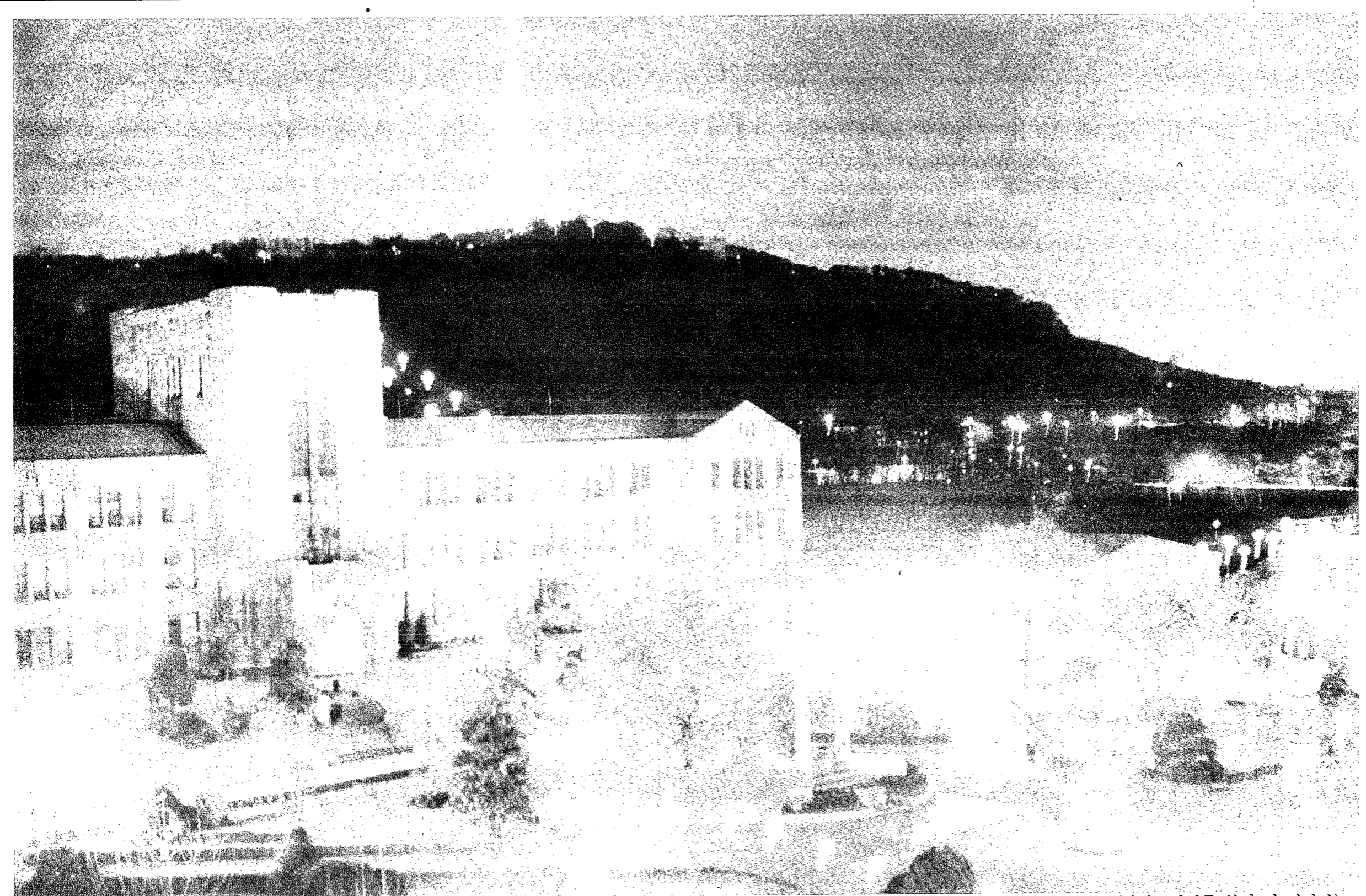


**금지일어** 욕심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고 마음이 고요하고 맑으면 근심이 없나니 욕심을 없애어 그 결박을 풀면 이것이 길이 깊은 못에서 벗어남이 된다. (법구경·애욕품 495절)

# 東大新聞

편집장	행인	송재준	구영준
주필	주국	송이길	재준의소
발행처	인간문화연구원	송이길	송이길

편집부 :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260-3492)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2770-2057)



(사진=이석종·본사 전 편집장)

**5월은 은혜와 감사의 달**

**재학생 모교방문실시 안내**

청년의 패기와 추억이 있는곳! 출신 고등학교 선생님을 찾아 뵙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후배와 정다운 대화의 자리를 만든다면 더욱 뜻깊은 방문이 될 것입니다.

1. 대상고교: 서울, 경기, 인천지역 소재고등학교 및 지방소재 희망고등학교
2. 방문기간: '95. 5. 15-5. 31
3. 신청기간: '95. 5. 9-5. 20
4. 신청장소: 학생과
5. 신청방법: 고교동문회 또는 희망자가 학생과에 신청서 제출

※방문에 따른 교통비와 기념품은 학교에서 제공하니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기 바랍니다.

동대신문사

**읽을거리**

- 63 시사논단-현 정권의 불교정책
- 64 시리즈-생활협동조합으로 가는 길
- 67 '불교미술 그 전통과 현대성'세미나  
본교 출신으로만 이루어진 동국불교미술인회가 주최한 세미나로, 불상·평화등의 불교미술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 68 불교정신과 21세기  
자비, 평등, 자유, 평화를 근본정신으로 하는 불교가 정보화 사회 21세기에 어떻게 기능하고 활용될 수 있는지 몇 분 교수의 글로 특집을 꾸며본다.
- 69 개교1백주년기념사업본부장 인터뷰  
동국발전 자금조성에 관한 인터뷰, 사업추진 계획을 들어본다.
- 72 영화의 패러독스-낮은 목소리  
역사 속에 엄연히 존재했으나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 종군 위안부(정신대) 할머니들이 스크린에 등장했다. 극장에서 최초로 개봉되는 기록영화다.

개교89주년 기념

불교정신 입각한 인성교육 선행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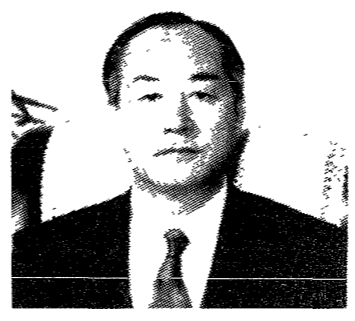


이사장 오 녹원

친애하는 동국인 여러분!  
그리고 재단의 임원 및 송석구 총장님과 황영수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여러분!  
오늘은 우리 동국대학교의 개교 89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본인은 이 영광스러운 날을 맞아 먼저 우리 동국대학교의 기틀을 마련하신 구한말 불교계 선각자들의 숭고한 구국정신과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신 혜안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감사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교 이래 한국현대사의 온갖 시련과 고난속에서도 강인한 의지와 애국의 열념으로 동국의 오늘을 있게 한 선조들과 역대 이사장, 역대 총장, 교직원 그리고 동문여러분들의 헌신적 노력과 정성어린 봉사에 대해서도 충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회고해 보면 우리 동국이 개교하던 1906년 초에는 일제를 위시하여 세계의 열강들이 개화를 빌미로 우리 한반도에 침투하기 시작한 위기로써, 국은

은 쇠퇴하고 한국불교 또한 큰 시련에 직면한 위대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때 나라를 올바르게 구하는 길은 오직 교육밖에 없다는 자각과 신념으로 불교계의 대덕들이 정재를 모아 명진학교를 세운것이 우리 동국대학교의 출발로서 이는 당시 불교계는 물론 우리 민족에게 축복과 희망을 주는 큰 불사(佛事)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교한 우리 동국이 순탄한 길만을 걸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제하에서 항일운동 등으로 세번이나 폐교를 당하는 수난을 겪었으며 개교이후에도 6.25, 4.19, 5.16, 10.26 혹은 문민정부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명암속에서 우리 동국은 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오늘의 명문사학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이제는 불교의 의지와 의연한 동국정신의 승리를 감개무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89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온 우리 동국은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교육개혁과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개혁과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통하여 세계의 대학, 민족의 대학으로 도약해야 할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 해답을 무엇보다 불교정신의 구현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특성을 지닌 대학이 가장 세계적인 대학이라고 한다면, 우리 동국대학교야말로 한국의 전통적 종교인 불교를 토대로 학문과 인격을 도

아하는 가장 한국적인 대학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학과 동양사상의 토양이 되고 있는 불교를 각 영역별로 현대학문에 접목시킴은 물론, 윤리와 도덕이 상실된 현대인들에게 불교정신에 입각하여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아울러 우리 동국은 지금 개교 100년을 앞두고 본교발전에 지대한 열정과 진취적 기상을 지니신 송석구 총장의 휘하에 더불어 대학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개혁과 창의적 발전계획이 적극적으로 기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전 구성원의 진지한 노력 못지않게 인화와 결속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국의 중흥을 위해서는 종단, 재단, 대학은 물론 동문, 재학생 모두가 동국발전의 주체로 주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서로 화합하고 협조하며 헌신적으로 동참함때 소기의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재단으로서도 동국발전을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과 가능한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결론으로 지금까지 동국발전을 위한 한 걸음 걸으시어 30년, 20년 10년의 장기 근속 표창을 받으시는 교직원과 특별학술연구 및 공로표창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치사를 보내면서 동국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동국가족 여러분에게 부쳐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 송 석 구

생명이 약동하는 푸른 오월, 오늘 존경하는 오녹원 이사장님을 위시한 이사님들, 송필주 총무원장님과 종단 대덕님들, 그리고 황영수총동창회장님과 동창회임원 여러분, 내외귀빈과 동국가족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개교 89주년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본인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교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흥전등화 같았던 1906년 불교 교단의 삼보정체를 모아 세워진 이래, 불교정도의 건실, 민족교육의 중흥이라는 두가지 교육이념을 줄기차게 추구하고 왔습니다.  
일찍이 불교계의 선각들에 의해 제시된 이 교육이념은 곧 본교의 건학이념으로서, 본교는 지금까지 89개 성상을 거처오는 동안 불교정신으로 인격이 함양된 수많은 인재들을 이 나라 각계각층에 배출하여 왔습니다.  
일제시대는 물론 해방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육인으로서 "동국맨"들은 이 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 분야에 걸쳐 눈부신 활동과 노력을 통해 창조

경쟁력 확보로 명문사학 영광 되찾아야

적인 업적들을 수 없이 남기고 있고 또한 창출해 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동국의 전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국인 여러분!  
본교는 한국의 근대사와 역사를 같이 해 왔듯이, 현재와 미래에도 분명 그러할 것입니다. 특히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배양하고, 전통문화의 재창조를 통하여 세계속의 "한국"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교육적 역할과 사명을,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더욱 강요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동국대학교의 교육적 배경이 1천6백년의 한국전통불교문화에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역할과 사명을 도리어 국가적 소명이 아닐 수 없으며, 또한 우리가 세계속의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밖에 없는 당위적 명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동국"은 거듭 태어나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학문상의 종합화와 특성화, 첨단화와 인간화등의 어려운 과제들을 조화롭게 달성할 기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교육의 질적향상과 시설의 양적확대도 추구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들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전 동국인의 역량과 지혜가 하나로 결집되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점이며, 아울러 종단과 동문들의 교육발전에 대한 참여와 후원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입니다.  
21세기는 혼란을 경험과 협력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협력보다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은 분명한 일이며, 대학교육에 있어서도 이제 세계 선진국을 상대로 한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

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도 상품이라는 시대적 요청은 대학교육 자체의 대중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생존자체를 시장경제원리에 맞추도록 유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자기고유의 브랜드를 갖는 경쟁력 있는 교육을 지향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21세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동국"의 교육책임자로서 우리대학이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의 첨단화와 양적확대, 그리고 상당한 교육재정의 확보는 물론, 시대에 맞는 학문상의 구조 조정등이 그러한 것들의 일環입니다.  
장차 일선에 참전시할을 갖춘 제3캠퍼스를 세우고, 불교종합병원 건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동국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대학으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명문사학의 영광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교 89주년을 맞아 이러한 당면문제들의 해결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과, 우리 동국이 높은 기상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사람교육에 치중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다같이 동국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임에 충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근속상을 받으신 교수·직원 여러분과 그 가족에게 거듭 축하드리며 동국가족 모두의 앞날에 부쳐님의 기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동국발전 선구자역할 기대

창간 45돌을 맞이한 동대신문은 어느때 신문 받아보던 답답한 생각이 들 정도로 편집이 영성하지 않으면 너무 짜릿한 느낌이었는데 이번 특집호는 아주 시원하여 독자로 하여금 읽어보고 다음장을 넘기고 싶은 욕구를 일으켜 주었다. 특히 1면의 창간기념 축하취조, 초대주관 회고기와 읽을거리의 편집은 아주 좋았다.  
7면의 동대신문 발자취는 동국인으로서 동국의 역사를 한번쯤 들여다 볼 수 있어 좋았으며 8·9면의 특별좌담 '21세기 한국대학 교육의 선택' 또한 교육개발회시에 대한교육의 나아갈 방향과 대학의 개혁을 논의한 점이 대학인으로서 꼭 읽어보아야 할 지면이었다.  
창간특집호는 여론·문화·보도 모든면에서 성실함을 엿볼 수 있

되고 할당된것이 안타까웠다. 대학신문의 참신성은 '대학다움' 그 자체이며, 굽히지 않는 소신과 창발적인 사고, 그리고 정의에 대한 두려움없는 태도가 우리의 가슴과 머리에 울려 '신문배'라 하는 잉크내처럼 항상 진하게 불어나길 바란다. '대학신문은 기성신문의 인습을 뒤집어헤서는 안된다'는 엄격한 기우이기를 또한 절실히 바라는 바이다. 이에 반해 특집기사의 여론조사란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냉철하게 논할 수 있었으며 자칫 얼버무리거나 적당히 타협하려 목과뿔을 쓰는 학우 각각의 소신과 바람을 여론의 통합성이라는 거시적차원으로 제시해줌으로써 동국학우의 공론의 장이 되었음을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과학에세이란은 자칫 딱딱하고 어렵기쉬운 소재를 읽기 쉽고 흥미롭게 이끌어내서 좋았으나 전문용어의 함의를 적어주는 배려가 청탁되어진 기사를 받아 그날 밤까지 신문이 아니라 품어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는 신문이 되기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윤영미 (자연대 기교과)

열린 글터

신설학과 교수채용 임시방편식 운영이 문제

대학에서 한 과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 학생회설, 교과과정, 전일교수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정말 한 과를 짊어지고 과의 올바른 모습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전일교수의 몫이 대단히 크다. 즉 직에서는 아버지이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에 신설학과들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94년 북한학과, 반도체 과학과, 전산통계학과가 신설되었는데 이중 북한학과만 교수채용이 되었는 이유로 유보되었다. 이 과정에서 두 학과는 파행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과의 목소리도 한곳에

모으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94년 신설학과 문제가 대학내에 크게 확산되면서 야간강좌 자주와 부정기 학제에 벌어졌다. 이 속에서 95년 1학기에 교수채용을 하겠다는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가 이제서야 된 것이다.  
둘째, 95년 1학기에 몇몇과에 교수초빙 공고를 하면서 2학기 교수초빙을 70여명하겠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교수초빙공고는 52명이었다. 분명히 등록금 협상을 통해 15% 인상금으로 교수를 많이 확보하겠다고 학교측은 밝혔다. 그렇다면 예상대로 70여명에 달하는 예산책정을 했을 것이다. 여기에 분명히 학우들의 등록금이, 울바르 소이하는 의문이 가는 바이다.  
셋째, 94-95년 초에 그렇게 예타게 요구했던 교수채용이 95년 2학기에 거의 이루어 진것은 분명 대

학평가 인정제라는 구도를 생각하게 한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임시방편식으로 학사평정을 운영하는 속에서 재단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본다.  
김종철 (야간강좌 경영학과-이부대 부총학생회장)

학회 소모임 공간 없어 활동 못해  
작년 선거공약을 세세히 읽어 본 사람이라면 공동점 몇가지를 발견할 것이다. 그중의 하나는 바로 학회, 소모임의 활성화이다.  
그만큼 학회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가끔 학회와 동아리의 차이점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학회의 생존 여부는 학교의 생존여부이다."  
학과수업과 교양과목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스티디 차원을 넘어 공동연구, 공동장차를 해보자는 취지 아래 학생 스스로 조직한 것이 바로 학회이다.  
그런 학생들의 노력을 도와주는 커넌 가까스로 구한 진보학회연대의 방을 학교는 내쳐버렸다.  
인문대가 원효관으로 94년도에 이사하면서 인문인이 학생회관으로 이전했고 그 방을 진보학회연대가 쓰게 된 것이다. 우리 밑물결 역시 비록 운동장 스탠드이지만 유용하게 활용해왔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 만들 때처럼 강의실을 전전하고 있다. 또 대학 문화의 바른 방향을 정립하고 청담하려는 인문연 역시 학우들과 동떨어져 사무를 보게 되었다.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구태의연한 질문을 다시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허선희 (인문대 국문과)

### 목먹골

기대하며,  
-정보관리 '95의 한 일월이

축하합니다  
■ Skid Row가 돌아왔네요. 축하해요.  
-경영2 Sebastian

구영만 M.T를 축하하며  
-송배, 명식, 훈호, 여택이가

성국아와 아우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사회학과 3학년 일동

1995.5.1 '92소정아언니의 생일을 축하드려요.  
-응용생물학과 식물실 일동

112학군단 경제과 박병길과 김수연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35기 일동

Mr.한 예빈군 제대를 축하하며,  
-설삼이가

우리 법대 형사법학회의 귀여운 95 진학이와 명찬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94 일동

영진이 보거나, 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너의 생일행도

## 동 / 약 / 광 / 장

주위사람 사랑하면 아름답겠죠.  
-윤리과 94학번

5월7일 건축공학과 4학년들의 건축기사 2차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 '90 개구리

중간고사 죽순 분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 '92 전기

5월9일 화학공학과 수학여행입니다. 모두들, 잘 다녀오세요.  
- '93 배리

하늘에서 큰 곳이 성황리에 열려 전국의 무인들이 하나되는 지리가 되었으면...  
-산선지

그리고...  
■ 재환, 돈환, 훈철, 종민, 광익, 원철, 화진, 정권, 승원, 병수, 한규, 장민, 상근형들 모두모두 예빈군후련 잘 받고 오세요.  
-강두환

다향관 아줌마! 밤쯤 많이 주세요.  
-독문 법man

윤리학과 여러분, 힘 내주세요. 치열하게 살면 좋겠네요. 그리고

열심히 합시다  
■ 훈미야 5월 7일 동국오른(DUTC)열심히 해라  
-널 사랑하는

현대사 연구회 학우여러분 힘내십시오. 열심히 생활하도록 합시다.  
-국사 썰렁이

그리고...  
■ 인문대동계 종합수업에 대하여 사회복지학과 모든 학우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이범민

인문인 한마당을 무사히 치루시느라 고생하신 人文大 전 일원진과 각 학과 학생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문대 숭長

버리고 떠나기  
-호우회 15기 산에

죄송합니다. 노란 자전거 도둑이 잡니다. 사회복지물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범인

국문과 지금 시험기간 힘드시죠. 우리 힘내서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국문 화이팅!!! 95...

대전이영후학 하성어도 계속 경주에 놀러오세요! 몸조심 하세요!  
-불교 94

### 온방골

알립니다  
■ 울보, 패대기 연함M.T 갑니다. 많이 참석해주세요. 5월13-14일 일간  
-말레이지아

5월4일 오후11시 경북대 민주광장에서 "민중 연대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마나마나 모여주세요.  
-진보연대

제3기 한총련 출판식이 5월4~6일 대구 경북대에서 열립니다. 민족을, 조국을 사랑하는 온방골 1만 학우여러분 기꺼이 많이 배워주세요. 그리고 재미있게 놀구요.  
-89 도둑

경영학과에서 그름사운드를 조직합니다. 관심 있으신분 학회실로 연락바랍니다.(특히 기타, 키보드는 금구)  
-인전 향우회

5월4일은 우리들의 동국육룡최우대의 생일! 모두 축하!  
-동국육룡 발전지회

수고하셨습니다  
■ 광호야 수고했다. 시험기간에 발표회준비와 동아인들 대견하라고  
-마음소리

정보94 아그들이! 힘내고 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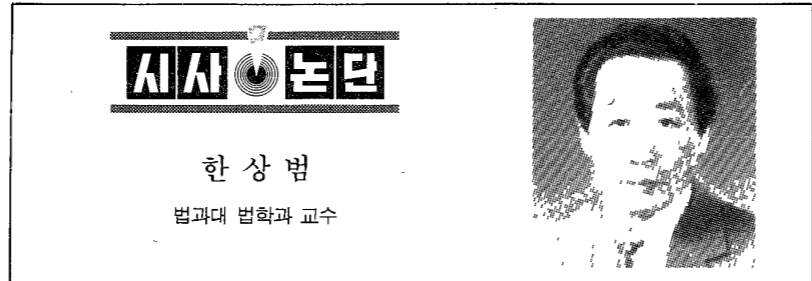
### 올바른 불교정책을 기대하며

# 공인, 공사분별·헌법준수는 목숨과 같다

현 정부가 근자에 한국불교와 가장 날카로운 갈등을 빚게 된 사건은 두가지일 수 있다. 하나는 작년에 서의현 전 총무원장 주도의 수구 부패종단에 대한 개혁이 있어서 공권력을 남용하여 사찰 경내에 침입하면서까지도 부패세력을 옹호하는 등 월권을 자행하는 추태를 자행하면서 비롯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누히 공약한 사항을 외면한 채 불교 종단에 대한 무대집을 주는 듯한 정책을 노정해 오다가 특히 지방방승국 설치 허가에 있어서 공약사항을 외면한 채 결국 처벌·불이익의 상태를 그대로 지속시키며, 특정종교 편들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인상을 그대로 지속시키는데 있다.

우리가 현정부의 대불교 정책에 대해서 날카롭게 감각을 관두세우고 과민으로 과민하다고 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간에 누적이된 정부의 불교 정책의 모순과 부조리가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이 점을 다시 정리해 보면서 최근에 불탄일 행사를 두고 재를 뿌리다시피 하는 검증고시 일차 변경사건을 언급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한국사회는 다종교 사회이고 헌법상으로 국교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법제를 기본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과 건국이 된 이후에도 일본 제국주의하의 종교 탄압과 예속·어용화의 법제인 '사찰령'체제가 그대로 지속되어 왔다. 1961년 '불교 재산관리법'은 이들을 바꾸고 형식만을 꾸민 '사찰령'의 재편으로 종단의 인사와 재산관리를 통제하는 악법이었다. 이 법제를 기증으로 해 한국불교의 어용화·전정권화를 강화해서 한국 불교종단이 정권 예측의 어용종단으로 철저하게 타락하게 만들었다. 지금 불교 재산관리법을 개정할 전통사찰보존



한 상 범  
법과대 법학과 교수

법이 대체 존속되고 있지만, 실상은 이 법도 불교재산관리법의 연장, 변조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제마저 전면 폐지하고서는 조계종이 그 재산관리를 해나갈수 없는 실정이다. 그밖에도 정상적인 사찰관리와 종무행정을 수행해 나갈수 없는 각종 법률적 제약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사찰의 부속건물을 하나 수리·보수하려고해도 관청을 들락거리길 수십차례 해야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사찰관리를 해 나가며 관청의 협조를 얻지 않고서는 종단 자체나 사찰 자체가 존립이 어렵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불교계 자체가 친정부적이 되게 하고 어용화되고 정권과 맞먹게 해 오면서 불교계가 정권 여당의 표가 되게 해 온 것이다. 이 점은 불교계 자체도 반성을 해서 처지에 알맞은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부과되고 있다.

정치 이용의 대상으로 해 오면서도 철저하게 차별·비하시켜 온 행적과 과거를 지니고 있다. 이점은 지금도 그 양끝이 가지지 않고 있다. 애당초 공휴일도 특정종교 교조탄생일만으로 했다가 70년대 마지 못해 고쳐서, 군대의 군복제도가 시행된 후 군복제도는 뒤늦게 시행되었고, 종교방송도 불교계는 아주 뒤늦게 한정된 지역의 지방방송으로 주파수를 배정받았다.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불교계의 표밭이 이용당하고 정권 유착 친연인사가 이권거래를 위해 불교를 배경으로 끊임없이 준동했다. 지금 불교인행단체의 단체장이 부정공사로 감옥에 있는 사실도 그러한 과거의 한 결과이다. 그렇다고 그러한 과거의 유산이 말끔이 씻어진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 이번에 교육부가 검증고시 일자를 모종의 행사로 연장 변경하면서 하필이면 불탄일 전야제 날로 한 처사는 우연의 실수인지 그렇지 않은지, 실로 유감천만의 일이다. 즉각 시정해야 할 일인데 사태는 심상치 않다.

정부는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공기관으로 특정종교 종단·종파에 대해 편중된 혜택을 주거나 또는 반대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평소

## 사설

### 개교 89주년과 동국인의 결의

본교는 오는 8일로 개교 89주년을 맞는다. 1906년 불교계의 선각자들에 의해 당시 교단의 삼보정자를 모아서 명진학원으로 문을 연 이래 중앙불전, 해학전문, 동국대학, 동국대학교로 교명을 바꾸어 오는 동안 본교는 이 나라 근대사와 역사를 같이하여 왔다.

좌절, 그리고 온갖 민족적 수난의 극복으로 점철된 것이 한국 근대사이듯이 본교도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외일 수 없었으나 다행히 불은(佛恩)의 가피를 입어 오늘날 국내 굴지의 사학으로 발전을 보게 된 것이다.

한국불교가 1천6백년의 역사를 겪어 오는 동안, 한국문화의 중추로서 찬란한 유산과 전통을 갖고 있듯이 본교도 이 민족의 암울했던 시기에 근대학문을 이땅에 정초(定礎)시키는데 선구적 역할을 담당해온 몇 안되는 사학 중의 하나임은 잘 알려진 일이다.

본교를 통하여 배출될 수 많은 인재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기고 있을 뿐만아니라 현재도 사회 각계의 엘리트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실들이 본교의 이러한 전통을 잘 일증한다.

그러나 모든 사물에는 명암이 있듯이 본교 역시 이러한 전통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과 양적시설의 확충이라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숨길 수 없다. 즉 명문사학으로서의 재도약을 모든 구성원이 열망하고 있으며 이 나라 교육계의 불교종단의 희망 또한 그러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개교 여든아홉을 맞는 우리들의 감회는 기쁨으로만 충만할 수 없다. 무엇인가 발전적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대학들은 교육개방과 21세기라고 하는 문명의 재편기를 목전에 두고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위기 의식에 차있다.

우리라고 해서 또한 예외가 아니다.

다행히 신임 총장님께서는 학내외의 이러한 '희망' 그리고 '추세'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몇가지 발전적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어 모든 동국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첨단 시설을 갖춘 제3캠퍼스를 일선에 신설하고 동국이 주체가 되는 불교종합병원을 건립, 이와 연계하여 수석성 높은 영탑(靈塔) 공원을 조성하며 대학발전기금을 확보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제는 초기단계에 있지만 총장의 원력과 타고난 추진력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재임기간중 필연코 성공을 거두리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려도 전통적인 불교계의 결집된 의지였이는 이러한 큰 사업은 성공을 거두기 힘들다는 것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동국가족의 재분발을 촉구하며 동국의 앞날에 불은(佛恩)이 영속되기를 기원한다.

### ◆'노동악법 철폐...'집회 여파 해설

## 정권, 학생운동 탄압 빌미 삼아

## 길가던 시민 2도화상...진보학생연대 책임

지난달 25일 '노동악법 철폐'하고 원적 복시하라, 반민중적 세계화 논의 박살내고 보수 정치 규탄하자'라는 구호속에 2백여명의 학생들의 외침이 학생회관앞에서 들렸다. 그의외의 근거지는 '노동악법철폐 및 전국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연상회복 위원회(이하 전해투)소속 근로자 불법연행 규탄대회'이다.

'한총련 개혁모임 진보학생연대(대표=김성훈·연대총학생회장)주최로 열린 이번 집회는 지난 18일 제2종합청사 민원실에 노동 담당 관계자와 면담을 하기 위해 찾이간 전해투 노동자 30여명을 폭력으로

강제 연행한데 대한 규탄 집회이자 전해투 노동자들의 원상복귀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였다.

2시간 동안의 본집회를 마친후 50여명이 가두행진을 시작했다. 가두시위 도중 화염병과 쇠파이프의 출현및 전경의 강경대응으로 시위는 급작스럽게 정리됐다.

이런 과정에서 지나가던 한시민인 박동희씨가 화염병에 맞아 2도 화상을 입었다.

무고한 시민의 증상으로 이번집회의 그 근부취지마저 상실한채 기성언론에 의해 '동국대생 격렬시위...시민 증상'등으로 보도되었다.

이로인해 본교 명예순상등의 이유로 총학생회(회장=안진우·국교4)측은 총학생회와의 동의 없는 학내 집회를 금하는 한편 박동희씨를 위한 모금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박동희씨의 부상이후 총학생회 입장 표명 대자보와 동국대 노동쟁기확대(단장=박동민·이과대 학생회장·이하 기획단)대자보가 나란히 붙여 눈길을 끌었다.

총학생회측은 "집회의 의의는 공감을 하지만 현재를 비추어 폭력시위는 탄압의 빌미작용밖에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획단은 "총학생회측의 입



한총련 개혁모임 진보학생연대는 지난달25일 '전해투 근로자 강제연행 규탄대회'를 마치고 가두 시위를 나서고 있다.

장표명에 대한 현정권의 논리에 넘어간 모습이라며 도덕적 책임은 느끼지만 분시위는 정당했다"고 밝혔다.

물론 무고한 시민의 불의의 사고만 없더라도 양측의 입장차이는 백지장 한장 차이에 불과하다.

문제는 박동희씨 증상으로 커질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대해 '한총련 개혁모임 진보학생연대'는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어쨌거나 김성훈은 탄압의 여세를 몰아 이번 시위를 학생운동 탄압의 빌미로 낚아채고야 말았다. (양수정 기자)

## 동국만평



## 새로운 세계로의 도약을 꿈꾸는 인재들에게 날개를 더해주는 기업

### 지원서류부 및 접수

① 교부 및 접수기간 : 1995. 5. 1(월) ~ 5. 13(토)  
 ② 교부 및 접수처 : 당사 인사부 인사과  
 \* 삼양사 분사 : 서울 중로구 연지동 263 (주) 삼양사 인사부 인사과 (우편번호 : 110-725) ☎ (02)740-7155, 7154

### 기타

① 모집인원중에는 계열회사 인원이 포함되어 있음 (특히 전산, 정보통신, 상경계 중 전산부문 희망자는 계열사 인원임)  
 ②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③ 우편접수는 5월 13일 (토)까지 도착분에 한함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하기 바람

주식회사 삼양사 • 삼양중기주식회사 • 선일도담주식회사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 • 삼양화학주식회사 • 신한제분주식회사  
 삼양종합금융주식회사 • 주식회사 삼양메디케어 • SY 텍스타일  
 대한산림피어비 • 삼양그룹연구소 • 양영회 • 수당정착회

## 신입사원모집

###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 집 부 문	인원	응 시 자 격
대 출 사 원 경성계, 법정계 섬유공학, 화학공학 식품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토목공학 환경공학, 축산학과 정보통신학과, 전산학과	○○명	1 정규 4년제대학 모집 해당학과 전공자로서 95년 8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기취득자 또는 95년 7월말 이전 학년 및 학사장교 전역예정자 2 196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병역 의무없 또는 면제자 (여자는 7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석사 연구원 섬유공학, 고분자 화학공학, 화학, 약학 산업공학(연구관리전공)	○○명	1 모집 해당학과 전공자로서 95년 8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기취득자 2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여자는 6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병역의무없 또는 면제자 우대 4 병역특례 희망자도 지원바람

### 전형방법

① 대출신인사원 : 서류심사 → 필기시험(영어) → 면접 → 신체검사  
 ② 석사연구원 : 서류심사 → 연구소 세미나 → 면접 → 신체검사

###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당사소정양식) \_\_\_\_\_ 각 1부  
 ※ 단, 육군은 육군양식 가능  
 ②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_\_\_\_\_ 1부  
 ③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석사) \_\_\_\_\_ 1부  
 ④ 자격증 사본(소지자) \_\_\_\_\_ 1부

### 사회단신

#### 한총련 출범식, 대학생 삶 고민

#### 투쟁결의의 장되야

#### 4·5·6일 경북대에서

“갈라진 50년, 희망의 95년 새세기를 대비하는 당시는 대학생 민족 민중을 돌아보는 고대의 이름은 청년 백년정춘야! 아름다운 대학시절, 통일조국 원년을 노래하라”를 충기치로한 제3기 한총련 출범식이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경북대에서 열린다.

이러한 기저에 걸맞게 한총련 출범식의 방향성 또한 조금은 변모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백만이 시대인식과 조국과 민중의 운명과 대학생의 삶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 합의해, 나가는 장이어야 하고 투쟁총화의 자리가 아닌 투쟁결의의 장을 위한 것이다.

또한 형식적 측면에서는 무대중심으로 마당중심으로 바꾸어 백만학도의 대중축제의 장이자 참여의 장을 만들고 고전적인 별폐였던 시간문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예년에 비해 20일 가량 출범식이 앞당겨진 것에 대해 한총련에서는 “출범식이 투쟁을 총화하고 우리끼리 즐기는 장으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출범식 성사 후 더 높은 결의 투쟁을 시작하여 상승곡선을 그리기 위함”이라 밝힌다.

이뿐만 아니라 한총련 출범식이 가지는 의미는 출범식을 기점으로하여 2월부터 4월까지의 사업을 잘 총화하고 힘있게 예견되는 5월부터 8월까지의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기도 하고 한총련 혁신을 대중적으로 확인하는 장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로 세번째를 맞는 한총련 출범식은 최초 경선에 의한 의정총회라는 측면에서도 자못 의의를 들인다.

전야제 및 백만정춘 통일마당, 부문계 인연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와 “다시 민중과 함께하는 한총련을 승수계 하자”는 로고야와 마당별 각종 전시 및 선전거리가 열린다.

또한 시민학생 한마당을 개최하여 대중과의 사업이 적극통합할 뜻을 밝히고 있다. (사회부)

#### 영석고 관련기사 정정

본지 지난 3월22일자 ‘열린글라’ 투고 문중 영석고 안채란 전 교장에 대한 월급착복, 육성회비 강요등의 내용은 본지의 4월12일자 ‘사회단신’ 영석고 특별감사 발표 기사를 통하여 사실이 아니었음을 거듭해명하고, 영석고 사태와 관련된 기사중 ‘법원에 파소’는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 지청에 고발’로 바로잡습니다.

안채란 이사에 대한 개인적 명예에 손상이 있었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생활으로 가는 길

본사에서는 생활협동조합의 필요성을 점검하며 생활의 의의와 필요성, 대학생 사례, 보고 실정에 맞는 생활의 모습을 세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

#### 1. 생활협동조합의 정의

생활협동조합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의를 내린다면 “생활협동조합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나은 생활,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뜻을 같이하며 협동적 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협동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생활협동조합은 생활을 위해서 서로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이며 물건을 매개로 서로 만나고 인간정신의 회복을 지향하는 것이다.

생활협동조합의 정의를 보면 다음의 세가지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그 첫번째는 협동조합을 자본주의 체제내에 있는 경제적 약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발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이다. 즉 철저한 경제조직으로 파악하여 자본주의의 부정보다는 내재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사회개혁의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둘째는 협동조합을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상품시장의 상권을 지양하기 위한 개혁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다.

#### 첫번째-생활의 의의와 필요성

###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주인의식 고취

### 물건 매개체로 조합원 민주적 방식 구현

이것은 협동조합을 비록 경제적인 방식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협동조합을 사회주의 혁명의 무기 내지는 혁명기관으로 보는 관점이다.

#### 2. 생활협동조합의 역사와 우리의 현실

근대적 협동조합운동은 1844년 영국의 로치데일에서 설립된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Rochdale Equitable Pioneers)의 탄생이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문양의 청소부터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로치데일의 유명한 이야기는 ‘꿈을 실현하려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의 사회질서를 개혁하여 새로운 협동사회를 건설하려는 높은 이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방도는 매우 현실적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어찌보면 초라하게 시작된 협동조합운동은 현재 국제협동조합연맹(ICA) 71국 164개의 협동조합 전국조직과 단위조합이 74만개를 헤아리고 있다. 그리고 유럽

의 경우 총인구 7억 중 1억5천만명이 조합으로 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2년 생활협동운동 전국조직의 탄생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 3. 생활협동조합을 하는가

생활협동조합은 일반 주식회사와는 다르지만 기업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왜냐하면 물건이라는 것을 매개로하여 조합원들과 만나기 때문이다. 즉 물건의 구매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생산까지도 담당한다. 하지만 주식회사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조합원들의 투자로 이루어지는 것은 비슷하지만 투자의 액수에 상관없이 1인1표만을 행사해야 한다. 또한 기업과는 다르게 조합원에 의해 집단적으로 소유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차이점은 인간을 가장 중요시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생활협동조합은 어떤 생활협동조합을 하는가. 일차적으로는 구매공급사업이 있다. 구매공급사업이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싸고 좋은 상품을 집단적으로 구매·공급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이용시설사업을 진

행한다. 이것은 주택과 같이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들을 공동의 힘으로 공동주택과 같은 것을 건설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문화복지사업을 들 수 있다. 부정부패방지, 추방, 쓰레기의 재활용, 조합원의 일상적인 문제해결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영역의 사업들을 진행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건이라는 매개체를 통한 조합원들의 민주적 생활방식을 구현 체득하는 것이며 조합을 통해 자본주의적 폐해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즉 조합의 단위 토론과 총회를 통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새사회가 결국은 서로 협동하는 사람공동체라는 것을 작은 단위를 통해서 실현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생활협동조합 자체의 태도를 민주적이고 사람중심적인 내용으로 가져간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태도를 변혁의 과정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4. 대학에서 생활의 필요성

대학생활은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열기 시작했다. 현재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전국조직을 포괄하는 생활협동조합이 1900여개의 매출고를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선대, 이화여대 등 몇몇 대학에서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국에 걸쳐서는 생활협동조합이 건설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대학생활은 ‘단결과 협동’이라는 협동조합의 원리에 기초하여 그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즉 대학내의 소비의 주인인 학생들은 소비에 있어서 제대로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다. 개별적인 학교관을 놓고 본다면 그 소비가 그리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대학내 주체들이 소비하는 것은 매우 거대한 상품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학생들의 대응은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만일 생활협동조합이 건설된다면 이러한 물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통한 저가공급을 이룰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도 사용하는 것을 공동생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남은 잉여금은 다시 조합원들을 위해 재투자되며 또한 이익금의 적립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잉여금을 분배한다.

물질적인 풍요의 추구뿐만 아니라 서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협동과 단결의 정신을 기르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학내에서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이 아닐까 한다.

이승현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공과대 산공과)

### ◇노동운동의 현실과 민주노총 건설 현황

## 민주노총, 대중 결집해내는 조직으로 우뚝서야

기업별 노조 소속에 갇혀 있던 노동운동

노동운동의 영역은 크게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 정치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결합될 때만이 발전하며 나아가 노동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노동해방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노동운동의 현실은 양자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거나 각자 나름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 정치운동의 토대인 노동조합운동이 기업별 노조의 태두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쏠림(회사사정과의 대립관계)이 태두리를 벗어나 전체 자본가 계급에 대항하는, 나아가 사회의 온갖 모순구조 해결의 주체로 나서려는 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정치운동영역 또한 노동조합운동이 기업별 태두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목적의식적인 지도내용을 확보하지 못한 채 (노동자 대중적 토대 상실) 바로 정치세력화(정당건설 추진)로 나간 실패를 경험하여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민주노총 건설이 갖는 의미와 추진현황

노동조합 운동과 노동자 정치운동이 상호 결합해서 발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기업별 노조의 태두리를 뛰어넘어 산별노조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기업

별 노조에 갇혀 있음으로 해서 노동자 대중은 의식적으로 1천만노동자 전체의 계급적 이익 보다는 자기회사 이기주의, 나아가서는 개인주의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조직적으로 무한경쟁을 강조하고 기업 위기의식을 고취하는 자본가에게 굴복하여 회사가 살아야 노조가 산다는 노조공동체 의식이 찾아 결국 노조무용론에 빠지게 된다. 부정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개별노조의 부흥으로 국한되어 정권과 자본에 집요한 탄압을 받아 조직력의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노동자 정치운동영역이 무차별적인 정치적 실천과 선전선동으로 노동자 대중들을 계급적·정치적으로 의식화·조직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동자 대중들의 산별의식(계급의식)은 형식적으로 조직을 산별로 재편한다고(우리 현실에서는 자주적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것마저도 불가능) 해서 형성되어 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대중들이 경제적 요구에서부터 기업별 틀을 뛰어넘는 전체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에 대한 고민과 실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때만이 산별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만들어 내고 집행해나가는 전국조직이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은 산별 중앙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과도기적

인 민주노조연맹의 전국 중앙조직으로서 형식은 기업별 노동조합 연합체나 사업의 내용은 분명히 산별 조직의 지향을 갖는다.

현재 민주노총 준비위는 참관조직을 포함하여 1,370개 노조 51만여명의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19개 산업(업종) 20개 지역, 3개 그룹을 포괄하여 오는 11월 전국노동자 대회를 통해 결성을 대중적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준비위는 95년 임단투를 기업별 태두리를 넘어 산업별 중앙조직으로 노동조합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회개혁투쟁을 집중배치하여 산별의 내용성을 담보해 들어가고 있다. 특히 조선노협과 금속일반(기계, 전자, 자동차 일부 등)은 업종별 연대를 넘어 금속 산업 전체의 단결된 조직, 즉 금속산별추진을 위한 모임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준비위는 앞으로 민주노총이 어떻게 변혁지향적인 중심을 가지게 하느냐, 얼마나 폭넓게 대중을 결집한 조직이 되게 하느냐, 조직건설의 주체를 밀도로부터 얼마나 많은 대중을 이끌어 내느냐 하는 과제를 갖고 힘차게 민주노총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이정림 (대구노련 사무처장)

#### 동약로

### 노동이란

“예전엔 노동자란 말만 잘못 꺼내도 잡혀있었는데...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다가올수록 억울한 태도를 대항해 갈사 드립시다”

열사추모제의 분향식에서 끝내 이소선 여사와 그의 열사가 죽음을 택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29일날 밤 울산대운동장에서 열린 전야제의 환호성과 축제분위기는 전혀 느낄 수 없게 분위기는 한동안 가라앉아 숙연해졌다.

지난 30일, 영남노동자대회를 치르기 위해 노동자와 학생들 4천여명이 울산 태화강 고수부지에 모였었다.

마신에서 왔다는 한 노동자는 추모제를 보며 “요즘 살기가 좋아졌지, 솔직히 예전엔 먹고 살기위해 노동운동 했었지만 지금은 어디 그런가. 위에 서 있는 일한다는 건 없지만 내서서 하는 사람은 적고...”라며 한숨.

깃발일장과 함께 시작된 본대회, 대회장속에 뿌려진 유인물 속엔 “O O 그를 81명 집단해고”, “조일류그를



노동자 쇠망이에 깔려 사망” “복직을 요구하는 해고노동자들 경찰의 끈베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등의 내용이 읽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사회주의 투쟁구호에 따라 하는 이들의 목소리 연 함이 담겨있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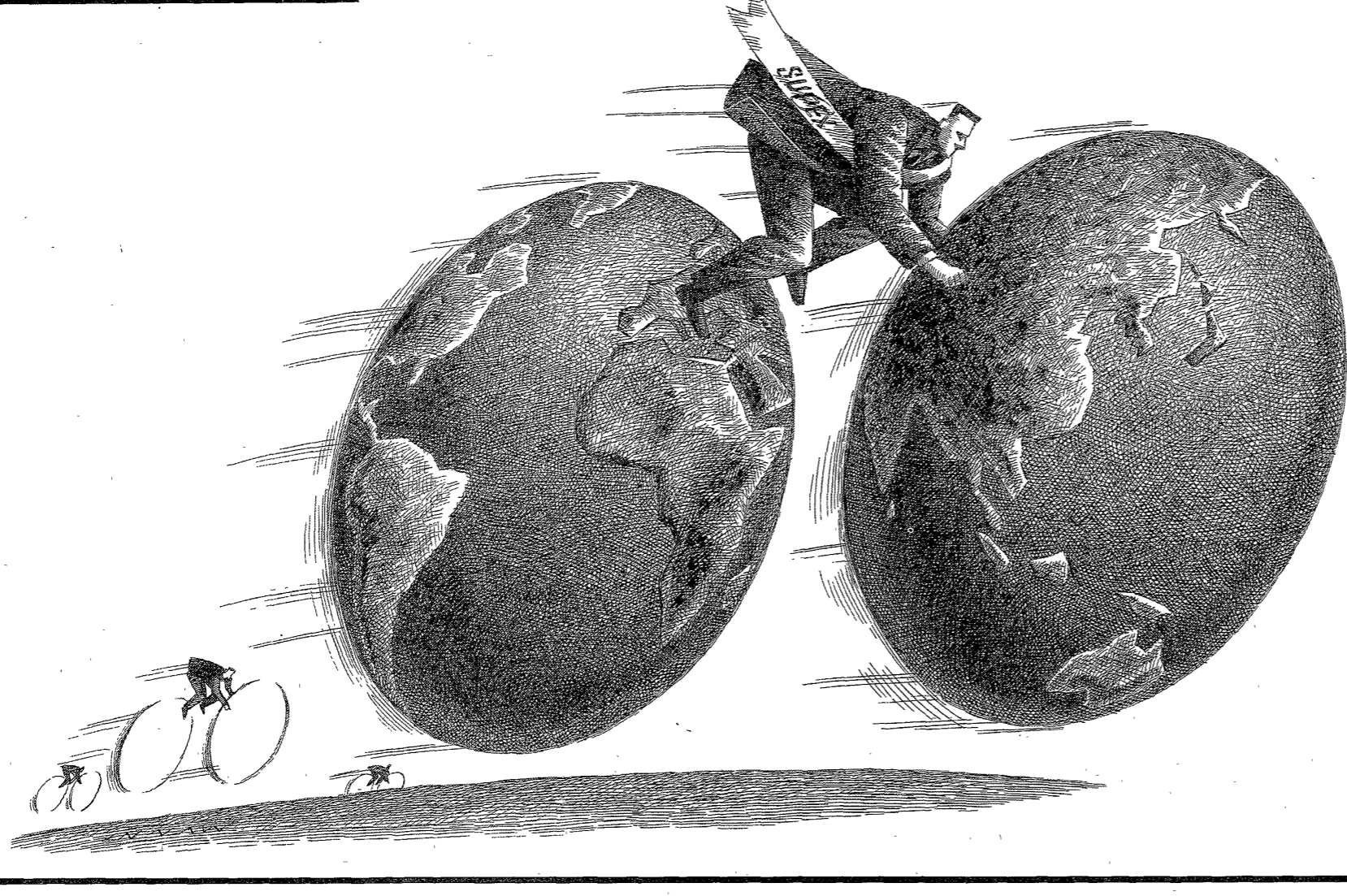
해선 우리 아직 할일이 많습니다. 노동법개정, 임금억제 가이스트라인 철폐, 민주노총건설등을 해야죠”라며 전노협 지도위원인 김승호씨

는 말한다. 본대회를 마치고 가두행진에 나서서 한 대학생은 “좋아요, 저희도 예비노동자인데 당연히 참석해야죠”라고 힘있게 말해 학생들이 단순히 객으로만 참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3시간에 걸친 노동자대회가 끝난후 만만 이승필 노조위원장은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결의했으니, 잘되어 질 것 같지요”라고 웃음을 건넸다.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위해 나아가는 외로운 노동자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이현주 기자)

#### 선경의 세계화 전략은 수펙스 추구입니다



## 수펙스 추구는 어려운 말도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1등이 앞으로 도달할 실력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목표로 노력해야겠지요. 내가 노력할 때 그도 손 놓고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경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세계일류를 목표로 노력한다면 우리의 수준은 크게 올라가겠지만 그 세계일류도 계속 발전하게 되어 결국 그들과 겨우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세계일류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추구해야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선경이 그간 수펙스를 추구해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SUXEKS IS...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에 돌입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서 핵심인 경쟁우위에 서기 위한 선경 특유의 경쟁전략으로, 지금의 세계일류 기업들이 앞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 즉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 (SUPER EXCELLENT LEVEL)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SUNKYONG 鮮京그룹

# 개교 89주년... 기념식 4일 중강당에서

## 축하·감사패 수여 12명 공로상 51명 근속 표창

개교 89주년 기념식이 내일(4일) 오전 10시 중강당에서 오복원이사장, 송석구총장, 황명수 총동창회장을 비롯하여 내외인사, 교직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날 행사는 삼귀례를 시작으로 국민례, 발원문 봉독, 학교연혁 보고, 개교 기념공로패수여, 총장-이사장-동창회장 축사, 사후서원순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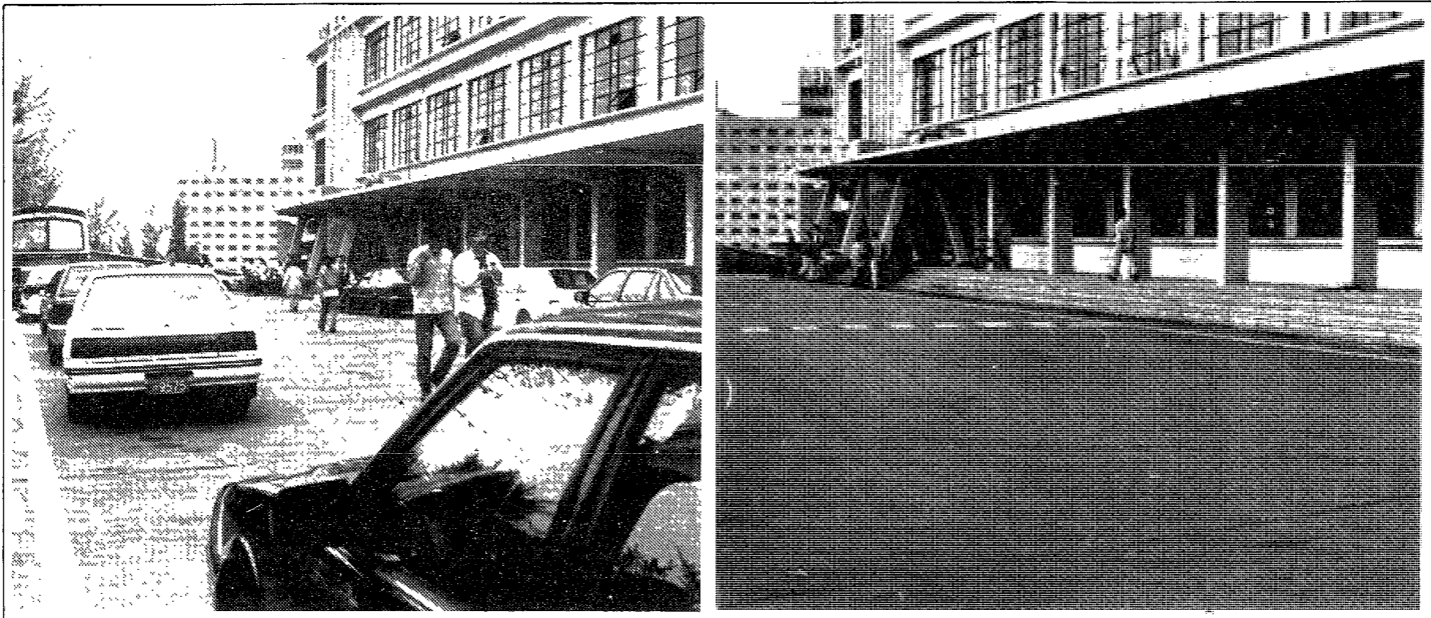
이번 기념식에서는 장내순 할머니가 후학양성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써 달라며 시가 12억원 상당의 일야 4천평을 본교에 기증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김병수(경주 학생처 장학과)씨가 특별공로상을 받으며 그 외 11명이 공로표창을 수상한다.

특히,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1억원을 기부한 경제학과 권오철교수 미량민 간속자여사가 감사패를, 한국원자력 기술 대상과 과학기술 진흥산업포장에서 시상한 지역개발대학원 총동창회장 이두철씨가 축하패를 각각 받게 된다.

또한 허찬(보건소)씨와 박재현(경주 지역개발대학원 교학부)씨가 30년 장기 표창을 수상한다.

공로표창 대상자 및 장기근속 표창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공로상 (서울캠퍼스)
  - 신기훈(기초조경실 기획과) △ 이경식(총무처 총무과) △ 김재선(관리처 관제과) △ 장근두(총무처
- 공로상 (서울캠퍼스)
  - 김기훈(기초조경실 기획과) △ 이경식(총무처 총무과) △ 김재선(관리처 관제과) △ 장근두(총무처
- 10년근속 (서울캠퍼스)
  - 서은길(불교학) △ 백봉홍(법학) △ 김동준(국어교육) △ 이춘계
- 20년근속 (서울캠퍼스)
  - 서은길(불교학) △ 백봉홍(법학) △ 김동준(국어교육) △ 이춘계
- 30년근속 (서울캠퍼스)
  - 서은길(불교학) △ 백봉홍(법학) △ 김동준(국어교육) △ 이춘계



◇ '캠퍼스 차없는 날' 실시... 지난날 28일은 먼회분위기와 연구환경조성을 위해 본교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설정한 '캠퍼스 차없는 날'이었다. 이날 송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전원이 지하철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했다. 사진은 평소의 도서관 앞(왼쪽)과 차없는 날의 모습(오른쪽)이다. (백도나 기자)

- 총무과) △ 권선수(관리처 관제과) (경주캠퍼스)
  - △ 한대호(사무처 관제과) △ 이강석(도서관 사서과) △ 박의룡(포항병원 서무과) △ 이경희(사무처 관제과) △ 김용순(경주병원 서무과) △ 이길우(경주한방병원 서무과) 이상 11명.
- 10년근속 (서울캠퍼스)
  - 서은길(불교학) △ 백봉홍(법학) △ 김동준(국어교육) △ 이춘계
- 20년근속 (서울캠퍼스)
  - 서은길(불교학) △ 백봉홍(법학) △ 김동준(국어교육) △ 이춘계
- 30년근속 (서울캠퍼스)
  - 서은길(불교학) △ 백봉홍(법학) △ 김동준(국어교육) △ 이춘계

### 보리수

#### 빈자의 일등

사뭇타의 가난한 여인 난다는 어느날 길거리에 나갔다가 이 도시에 부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부처님이 오시는 거리에 등불을 밝혀 공양을 올리고 싶었지만 기름을 살 돈이 없었다.

난다는 길거리에서 온전 한불을 구걸해 그것으로 등불을 마련했다. 부처님이 사뭇타에 도착한 날 저녁 사람들은 모두 정성껏 마련한 등불을 밝히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다. 난다도 구석진 곳에 초라한 등불을 밝히고 설법을 들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자 등불도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벽이 되어도 꺼지지 않고 점점 밝은 빛을 내며 타오르는 등불이 하나 있었다. 가난한 여인 난다가 깨끗하고 정성스런 마음으로 밝힌 그 등불이었다. 부처님은 초라하지만 오래도록 꺼지지 않는 등불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난다가 정성으로 밝힌 등불은 어떤 화려한 등불보다 더 오래 어둠을 밝히는구나. 난다는 이 공력으로 반드시 해탈을 성취하게 되리라"

이른바 '빈자일등(貧者一燈)'으로 알려진 이 일화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등불을 밝힐 때마다 많은 것을 생각해 해준다. 우리는 흔히 규모와 양만 보고 사람의 인격이나 진실됨을 평가하는 방법에 익숙해 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난다와 같은

여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 것 없는 불쌍한 인생일지 모르나. 그러나 참사람의 모습은 결코 재산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 외모의 추하고 아름다움에 있지 않다.

이웃은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을 하는 형편인데 전세금의 못배가 넘는 수억원대의 호화사치품을 사들이는 것을 과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런 사람의 인격에서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가 등불을 밝히는 것은 그분이 세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자 등불도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벽이 되어도 꺼지지 않고 점점 밝은 빛을 내며 타오르는 등불이 하나 있었다. 가난한 여인 난다가 깨끗하고 정성스런 마음으로 밝힌 그 등불이었다. 부처님은 초라하지만 오래도록 꺼지지 않는 등불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난다가 정성으로 밝힌 등불은 어떤 화려한 등불보다 더 오래 어둠을 밝히는구나. 난다는 이 공력으로 반드시 해탈을 성취하게 되리라"

이른바 '빈자일등(貧者一燈)'으로 알려진 이 일화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등불을 밝힐 때마다 많은 것을 생각해 해준다. 우리는 흔히 규모와 양만 보고 사람의 인격이나 진실됨을 평가하는 방법에 익숙해 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난다와 같은

### 홍사성

BTN 국장

# 황명수 총동창회장 재선임 96학년도 본교 입시 1월 18일

제57대 총동창회 정기이사회에서 특별 전형은 12월28일 24개학과 모집

제57대 총동창회 정기이사회와 동국을 빛낸 동문 축하연이 오복원 이사장, 최형우장관, 전 민병천 총장을 비롯한 2백여명의 이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날 26일 오후 7시 열네서터 호텔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황명수 총동창회장의 2년 임기만료로 유근창씨를 임시의장으로 한 총동창회장의 선출이 있었는데 유주형씨의 황회장 재임추천과 이에 따른 주위의 만장일치로 황명수회장의 재임이 결정됐다.

이날 황회장은 "최선을 다해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동국을 빛낸 동문축하연에

서는 최초 모교출신으로 취임한 송석구총장과 전국구에 진출한 이연석민자담의원,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에 취임한 홍명, 경찰청 차안감에 승진한 김대원, 94한국원자력기술상대상을 수상한 이두철, 문화방송 예술단 사무이사에 취임한 이상식, 경찰청 경무관에 승진한 김진영, 한국기자협회장에 취임한 김택근씨에게 축하패 전달이 있었다. 오복원 이사장과 최형우의원의 축사후 송총장 "10만 동문이 열마씨이라도 모급하면 연말에는 10억정도는 될 것"이라며 "3대 명문자리에 오르기 위해 기여금 모금에 힘쓸 것이다. 여러분이 있으면 동국재건이 될 것이다. 꼭꼭바쳐 일할것을 다짐한다"라고 말했다.

교무처(처장=장오현·경제학)는 96학년도 대학입시를 내년 1월 18일로 결정했다.

96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전기전형일이 분산돼 수험생들의 대학 선택폭이 넓어졌다.

1월 8일, 13일, 18일등 세차례로 나뉜 전기대 입시일에 각대학이 고부 분포에 있어 전기에서 3차례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본교는 마지막 날에 한국외국어대, 흥인대와 함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다.

특별전형은 전년도 24개학과 정원내 10%모집에서 2개학과 20%로 확대됐으며 12월 28일 치뤄진다.

해당학과는 서울캠퍼스 불교학과, 국문학과, 영문학과, 법학과, 사회과학대, 경상대, 공과대 전학과로 수능성적 상위 7%이내이고 경주캠퍼스 한의예과, 의예과는 3%이내로 지원자를 제한했다.

대학별고사는 예체능및 경주캠퍼스를 제외한 전학과 지원자를 대상으로는 논술 1과목만 치르고 10%를 반영한다.

특히 이번 입시에서는 전국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문학 특기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2학기 교수채용

'95학년도 2학기에 서울캠퍼스 일

반계열 21명, 경주캠퍼스 일반계열 30명등 총 51명의 교수가 총원될 계획이다.

교무처(처장=장오현·경제학)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지원접수를 받는다.

한편 올해 서울캠퍼스에 신설된 3개학과중 중문학과, 신분방학과에서는 교수초빙을 하는것에 대해 광고학과 학생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이에 학교측에선 "아직 교과과정 이 완성되어 있지 않아 내년도에 할 수 있다"고 밝혀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특별학술연구비 지급대상자 인문·사회·자연과학분야 결정

교무처(처장=장오현·경제학)는 95학년도 특별학술연구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했다.

연구업적 및 논문(또는 저서)에 대한 심사로 결정된 지급대상자는 △인문과학분야=허헌택(영어영문학)교수 △사회과학분야=김진철(정치외교학)교수 △자연과학분야=김해영(응용생물학)교수이고 장

려상으로 '물고어·만주어 비교어휘 사전'을 편찬한 김형수 경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교수가 수상한다.

시상 및 연구비 지급은 4월 개교 89주년 기념행사에서 있을 예정이며 특별학술연구비 수상자에게는 각각 기념패와 연구비 3백만원이,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기념패와 연구비 1백50만원이 지급된다.

### 교수동행

▲최용재(영어영문학)는 4월29일 한국 외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한국의 외국어 교육방향' 발표.

▲이종태(산업공학)는 전남대에서 4월28일부터 29일 실시한 한국경영

과학회 '95계학술대회에서 '공정배치를 고려한 SDF형태의 일반화된 기저-셀 형성기법'란 주제발표

본사사령

◇임수승기자

▲이여민(문과대 영문1) 이상 4월 17일자

### 춘계명찰순례안내

만물이 약동하는 봄입니다. 답답한 도시를 떠나 대자연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선인의 숨결을 느껴 볼 수 있는 명찰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장 소:강원도 민통선내 건봉사
- 일 시:1995.5.12(금)-5.13(토)
- 참가비:5천원
- 참가대상:전 동국인 대상
- 접수처:학생처 학생과, 정각원 사무실 90명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접수함

1995. 5

정각원장  
학생처장

### 취업특강안내

'95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95.8월) 및 재학생의 취업준비를 위한 특강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아래

- 일시:1995.5.4(목) 14:00-17:00
- 장소:동국관(L301)
- 대상:'95학년도 후기졸업예정자('95.8월) 및 재학생
- 내용:가. 하반기 각 기업채용정보 나. 이력서 작성법 다. 자기소개서 작성법 라. 면접방법 및 요령
- 주최:학생처 취업과 (Tel:260-3054~5)

학생처장

### 달라진 병역제도 안내

#### 재학생 입영(소집)원의 FAX제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학교별 제한 연령(전문대 22세, 대학 24세, 대학원 26세, 고교는 연령 제한 없이 졸업시까지)이내에 졸업이 가능한 사람은 졸업시까지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 됨으로 재학생이 입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구·시·읍·면·동이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병무청에서는 열린 병무행정 구현을 위한 HOME병무서비스 구축과 대국민 편의를 위하여 95.3.2부터는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내의 FAX를 이용하여서도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학생으로서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제출코자 하는 사람은 코드 NO.3100에서 제공하는 해당 서식을 FAX로 출력하여 입영희망 시기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본인 날인을 한 후 다음과 같이 병적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병적관할 지방병무청

- 현역병 입영대상자: 징병검사를 받은 지방병무청
- 공역근무요원 소집대상자: 거주지(주민등록지)관할 지방병무청

●지방청별 FAX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305	부산지방병무청	051)807-6062
대구지방병무청	053)250-2230	수원지방병무청	0331)250-0270
광주지방병무청	062)230-4270	대전지방병무청	042)220-9230
충청지방병무청	0361)58-6260	청주지방병무청	0431)270-1230
전주지방병무청	0652)8-3260	제주지방병무청	064)53-3912
창원지방병무청	0551)66-4991	의정부지방병무청	0351)877-3917
강릉지방병무청	0391)43-3914		

단, 재학생 입영(소집)원서 이외의 민원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재학생 입영(소집)원 출원후 일단 입영통지가 되면 입영(소집)원의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학생처장

### '95학년도 통일문제 학생발표 토론회 주제발표자 공모

본 연구소에서는 95학년도 통일문제 학생발표·토론회의 주제발표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고자 합니다.

주 제 : 1. 김정일체제의 형성과정  
2. 김정일정권의 통일정책전망  
3. 남북교류·협력의 단계적 추진방안  
4. 범국민적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대 상 : 동국대학교 재학생

신청장소 :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신청기간 : 1995. 5.19까지

논문타감 : 1995. 10.8

토론회정일 : 10. 27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교내 : 260-3508, 275-27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통일원주최 전국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회람자도 5월 19일까지 안보연구소로 신청·문의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 젊은 방식, 탄력없는 피부 만드는 것

### 자기 체질·비만원인에 따라 칼로리 제한해야

#### 신홍복

(한외대 한의학과 교수)

다이어트는 주로 뚱뚱한 여성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피눈물나는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 한다. 한의학적으로 비만은 독(毒)과 열(熱)이 충만한 체질로서 현행이상에 의한 어혈(瘀血), 체내 수분이 편재할 때 일어나는 수독(水毒), 음식물과 약물의 독소가 체내에 축적됨으로써 일어나는 식독(食毒)으로 인한다.

비만체질은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외형적으로도 아름답지 못하며 유형의 침단을 걷는 패션에서도 뒤질수 밖에 없다. 때문에 패셔너블한 옷을 입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려는 여성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한 순간에 아름다운 체질을 만들려는 성급한 마음

을 급기야 식사제한 식욕억제제를 사용하거나 혹은 기계를 사용하여 강제로 살을 빼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이라 할 수 없다. 더우기 굶어서 살을 빼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이란 늘씬함과 아울러 나이에 맞는 피부의 탄력이 뒷받쳐 줄때 그 싱그러움이란 더욱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굶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배고픔이나 빈혈로 부작용이 심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실상 살을 빼는데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탄력을 잃은 피부는 마치 무우알맹이 마냥 주름이 많이 생겨 주글주글해지기 쉽다.

단순성 비만은 과식과 운동부족이 원인이 되므로 지속적이고 꾸준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필요하다. 특히 뛰어난 아랫배와 뚱뚱한

허리, 허프, 넓적다리의 지방을 제거 하려는 여성일 수록 단계간의 식욕 억제 보다는 꾸준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이 부위의 불필요한 지방의 제거를 유도해야 된다.

이를 위한 조언을 제시해 본다. 식이요법이란 무조건적인 단식이 아니라 체질과 원인에 따라 칼로리 섭취를 제한한다. 채소나 과일처럼 양은 많으나 칼로리가 적은 것을 섭취하여 복부팽만감을 느끼도록 한다. 이러한 식이요법과 함께 운동을 하여 에너지 소모를 유도한다. 또한 책이나 TV를 보면서 먹는 습관을 버리고 밥을 씹으면서 땀, 음료수 등으로 간식을 하면 칼로리 소모가 거의 안되고 오히려 체중이 불어난다.

계절의 여왕 5월에는 많은 여성이 건강하고 늘씬한 몸매로 젊음을 하려 에너지 소모를 유도한다. 특히 뛰어난 아랫배와 뚱뚱한

## 히포크라테스와 허준

## 공통주제 다이어트

## 1주일에 0.5kg 감량이 적당

### 좋아하는 운동 자주하는것도 바람직

#### 성낙진

(외대 가정의학과 교수)

다이어트하면 금방 떠오르는 것이 비만일 것이다. 비만이란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방이 신체의 여러 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만의 판정은 정확한 방법으로 수중체중측정이나 몸의 전기저항의 측정을 통하여, 몸에서 지방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를 알아내야 한다. 간단하게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비만도를 계산해 보는 것이다. 비만도 = (현재중 - 이상체중) / 이상체중 × 100이며, 이상체중 = (신장 - 100) × 0.9이다. 여기서 비만도가 20% 이상이면 비만으로, 10%~20% 일시는 과체중이라고 한다.

비만은 몸매와도 관련이 있지만, 의학적인 견지에서 적추나 무릎,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수면장애(호흡곤란), 담석증, 지방간 등과 관련성이 크다. 또한 비만한 사람의

경우 유방암, 담낭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차이는 50세 이하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말초부위 비만보다는 중심부 비만이 더 큰 위험요인이 된다.

살을 빼는 방법은 섭취를 적게 하거나, 소비를 많이하는 것이다. 방법에는 있어서는 살빼는 차, 크림, 아체호소, 이노제 복용, 단식 등 다양하다. 그러나 효과의 불확실성, 위험성 등 때문에 권하지 않으며, 서양 의학에서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권한다. 목표 체중을 정한 후에, 장기간의 노력에 의해 서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다. 가장 적절한 속도는 1주일에 0.5kg 정도이다. 사실은 이 정도의 체중 감소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이 이상의 체중 소실이 대부분의 경우 수분소실에 의한 것이기에 곧 다시 체중이 늘어난다.

식이요법은 하루에 3회 식사를 지키고, 먹는 양을 줄이도록 하며, 고칼로리 음식을 줄여야 하고, 술 및 간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 밥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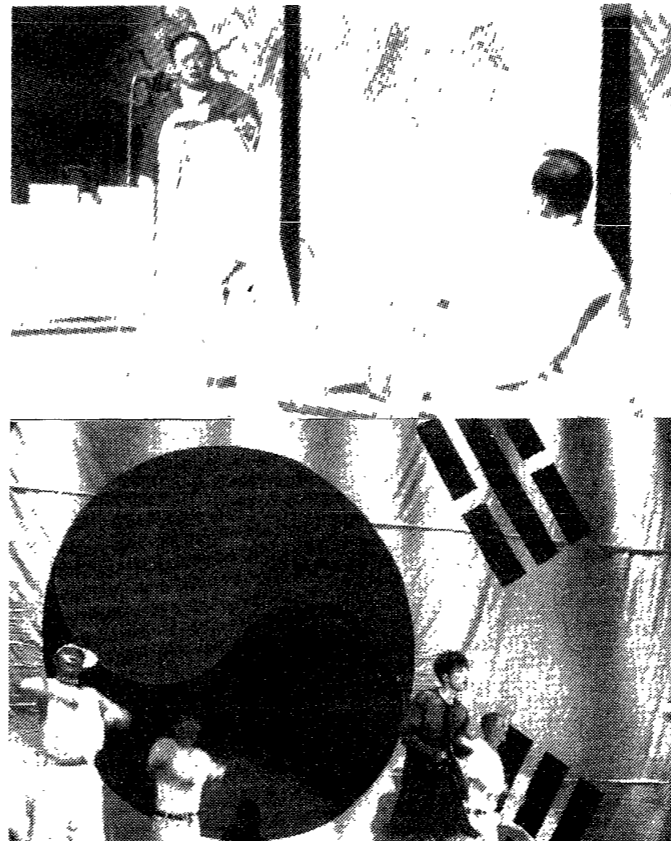
기는 작은 것으로 바꾸고, 처음부터 양을 적게 담는다. 느린 속도로 식사를 하며, 풀 한접을 마신 후에 식사를 시작하는 것도 좋다.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을 때에는 야채, 물, 과일 등이, 부패는 크고 열량은 거의 없는 음식을 먹도록 한다. 음식물에서 설탕이나 지방성분을 줄인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도록 한다.

운동요법은 일주일에 3~5회 정도 규칙적으로 하며, 하루 30~40분이 좋다. 숨이 약간 찰 정도, 등에 땀이 축축히 젖을 정도의 강도가 좋지만, 처음에는 가볍게, 차차 강도를 높여 가야 한다. 종류는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도록 한다.

세상의 일 중에 짧은 시간에 성취가 높은 것으로 큰 가치가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체중 조절도 꾸준한 노력이 해결책이며, 목표체중이 도달한 후에는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 ◇민요와 랩, 그것의 연관성

### 민요-말에 감정 담은 흥얼거림 랩-백인사회에 대한 저항의 언어



노래는 기본적으로 말과 밀접하다. 말에 감정을 뽐내고, 말을 늘리거나 짧게 하고 높이거나 낮게 하는 등의 폭을 갖는 것이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천택은 노래를 길고 긴 말이란 뜻에서 청구영언이라 했다. 그러므로 노래를 곧 말에 가깝고, 말의 차이에 따라 음색(音色)이 달라진다 할 수 있다. 이는 곧 각 나라의 민요를 살펴 본다면 더욱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말은 이렇게 노래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말과 노래의 중간 형태로 흥얼거림이 있는데, 흥얼거림은 곧 말에 자신의 감정을 담은 것이다. 흥얼거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해보자. 예전 말엽이던가 어느 큰 과수원집 머슴으로 할머니와 서른이 넘는 남치라는 아들이 있었다. 할머니는 물레를 돌렸는데, 물레 돌리는 소리를 따서 아이들은 '윙윙쪽쪽'이라 부르며 이를 모자를 놀렸다. 할머니는 물레를 돌리며 무언가 알 수 없는 소리를 냈다.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슨 노래 같기도 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윙윙쪽쪽이란 말 또한 무슨 말일까! 왜 당시대라 우리나라 사람들 말 그대로 초근목피로 목숨줄을 부지했다. 그 때 정황으로 보면 과수원 주인같은 자주는 곧 천일이나 다투어 없었고, 일반 민중들은 노내나 다름 없는 처지였다. 그러던 어느날 과수원 집 아들이 내려왔는데, 주인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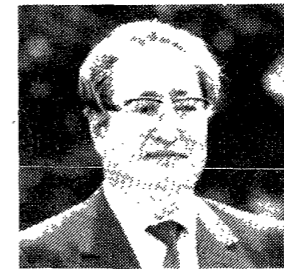
선 살핀 알뜰을 잡아 아들을 먹였고, 할머니의 아들 넘치는 말진 국물만 먹을 수 있었다. 아들에게 말 건 죽을 먹이는 할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할머니는 물레를 돌리며 나는 윙윙쪽쪽 소리여 저기의 마음을 담아 흥얼거린 것이다. 그 내용은 곧 하늘과 땅이 맞부딪쳐 이놈의 세상을 갈아야 한다. 밑바닥 아 보리밭아 아무리 쪼려봐도 일본놈 앞잡이만 호강하는 이놈의 세상을 하늘과 땅이 뒹뒷이 되어서 말끔해질 때까지 갈고 갈아야 된다

는 뜻인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가 죽은 후 그의 아들 넘치가 저것다 리를 두드리며 부른 노래 역시 "윙윙쪽쪽 윙윙쪽쪽 윙윙쪽쪽 윙윙쪽쪽 윙윙쪽쪽"이었다. 이렇게 말이 곧 흥얼거림이 되고 흥얼거림이 곧 노래가 된다 할 수 있다. 할머니가 물레를 돌리며 소대 같이 쉰 분노와 한을 담아 표현한 흥얼거림이 곧 민요의 주요한 바탕을 이룬다. 그리고 이런 흥얼거림의 형태는 각설이들의 장타령이나 옛장수들의 엿타령 그리고 동네 방배를 떠돌아 다니는 장사치들의 흥얼거림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흥얼거림은 무당들의 곳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랩 또한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랩은 미국 슬럼가에서 유행한 흑인 음악이라 할 수 있는데, 랩의 속성을 살펴볼 때 일종의 흥얼거림이라 할 수 있다. 미국사회에서 흑인들의 위치는 말 그대로 노예였다. 그들은 인간다운 사람을 열망하며 백인사회에 대항했다. 랩은 곧 이들의 가슴 속에 담긴 저항과 분노의 언어였다. 그리고 백인사회에 대한 조소였고 비아냥거림이었다. 랩을 부르는 손짓이나 말투를 보면 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흑인 특유의 음악성과 리듬감각 그리고 그들의 불우한 사회적 처지에 대한 반감 등등이 엮여져 풀어져 나온 것이 바로 랩이라 할 수 있다. 흑인들이 비록 백인들의 음악이 있었지만 그들의 본래적인 음악체계를 고수해 나가며 솔이나 잭즈 등의 음악들을 만들어 낸

## 달 하나 천장에

### 목재와 인재



요전 식목일에 모순되는 현상이 생겼다. 국가적 행사로 전 국민이 동원되다 시피 하여 식목을 하는데 한편에서는 산불이 나서 아까운 나무들이 타버리는 것을 보았다. 나무를 심고 기르는데는 쉬운 일이다. 산에 나무가 불타서 없어지면 물도 고갈되고 심하면 사막으로 변해버릴 위험이 있다. 목재와 인재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듯 하다. 나무를 심어서 쓸만하게 되려면 50년 정도의 세월이 소요된다. 인재는 기르는데도 그에 못지않게 장기간이 소요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목재는 거의 다 외국에서 가져다 쓰고 있다. 어찌 목재의 빈곤뿐이겠는가. 지금 각 분야에서 인재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나무가 없는 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재가 없는 나라가 무슨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인재난에 켈켈매고 있는 것은 정치관인듯 하다. 처음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 여야 할것없이 자신있는 인물들 내세우지 못하고 입후보자를 구걸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한심하다. 이것은 서로 제 잘났다고 유아독신을 고집하다보니가 중지를 모아 지도자양성을 못한 탓이라라. 그러면 차에 일본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소설가, 코미디언들이 등장, 오사카등에서 당선된 것을 보고 커다란 쇼크를 먹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TV 탈렌트를 대량 영입한다고 떠들어댄다. 이렇게되면 정치관이 TV코미디쇼와 같은 것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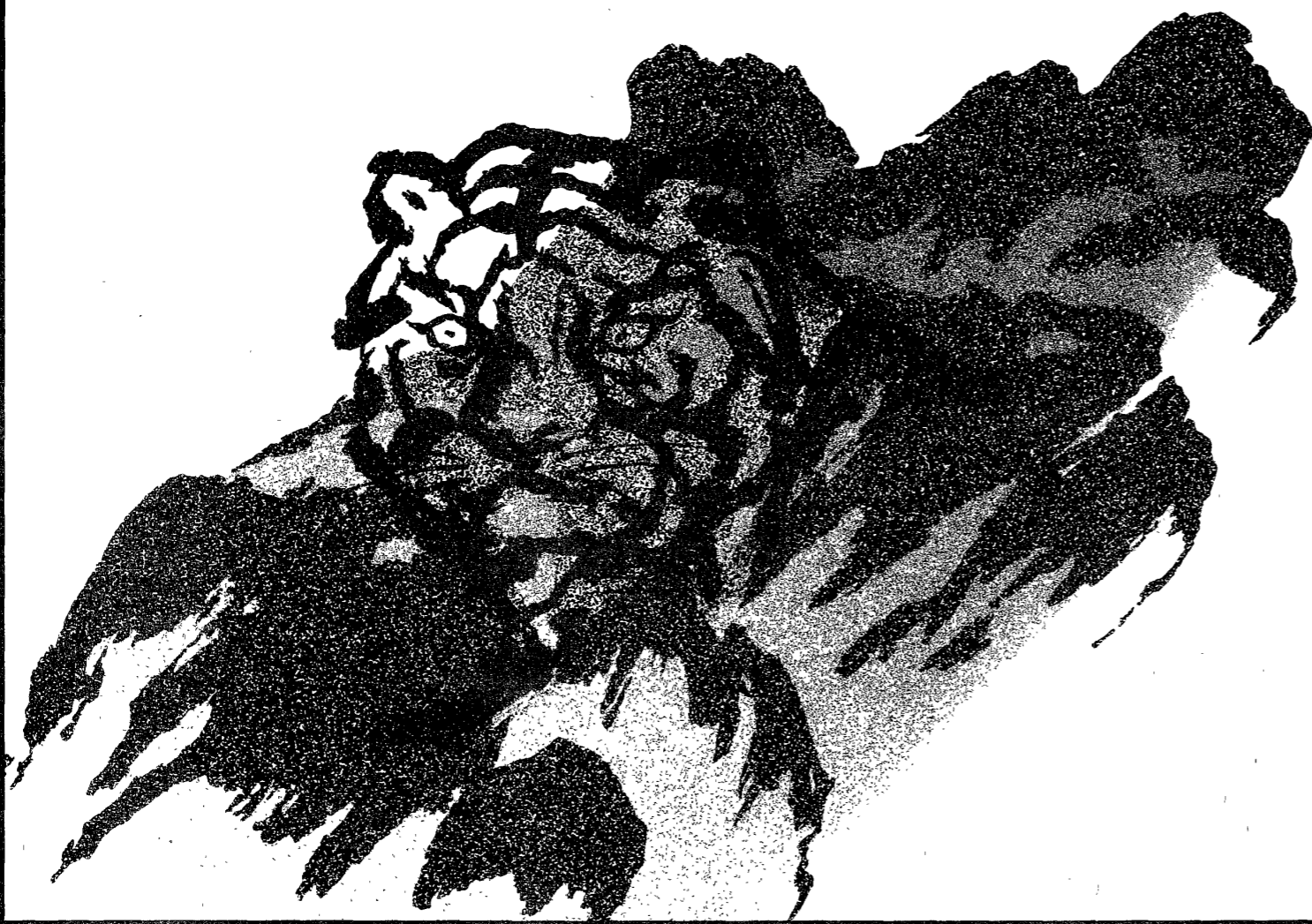
일본에서 이번 당선한 사람은 전혀 정치를 모르는 초보자가 아니다. 참의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값싼 쇼를 하는 탈렌트들이라고 할 수 없다. 정계에서는 지금부터라도 후진양성의 불편을 세워서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급선무임을 알아야 한다. 또 인물난의 해소책으로 외부인을 영입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1960년대 일본의 경우 패전 전의 보수정권에 영증을 느낀 국민들이 혁신계에 눈을 뜨리게 돼 대학교수 출신의 혁신계인사가 정계에 영입된 일이 있었다. 예전 저명한 헌법학자인 미노베 교수의 아들이 동경도지사로 당선되어 친북정책을 채용하여 평양을 방문하고 동경에 조선대학설립허가를 해주기도 했다. 전쟁전 경도대학의 통계학교수이던 니카와는 경도부지사로서 그간 8선으로 32년 장기집권하여 '니카와와 인민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다. 정치의 기술이 요구된다. 그것도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한다. 오늘의 정치, 그리고 내일의 정치를 책임질 인재는 실용적이며 기술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나무를 길러 산을 푸르게 하는 동시에 인재를 길러 나라를 살찌게 하자.

이순용 법과대학과 교수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그들의 음악 감성이나 리듬감에 대해서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돌아다닌 랩의 열풍은 흑인들이 저항적인 언어는 삭제된 채 들어왔다. 대중가요 특유의 언어인 사랑타령을 입에 달고 열불만 외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다만 서태지 정도가 랩의 한국화를 말하며 우리의 랩 수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랩언어에 대한 심대한 고민이 있다면 어느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할것은 남의 것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우리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김태균 (음악평론가)

POSCO 메세지 만화판



## ‘立石矢’ 一念이 바위를 뚫습니다.

한(漢)의 명장 이광(李曠)이  
 숲 속에 묻힌 돌을 호랑이로 잘못 보고  
 혼신의 힘을 다해 활을 당겼을때, 화살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이 돌에 박혔다고 합니다.

화살로 바위를 뚫는一念이 그를 명장으로  
 만들듯, 어떤 것이든 뚜렷한 목적을 갖고  
 수련을 쌓으면 안되는 일이 없습니다.  
 一念이 바위를 뚫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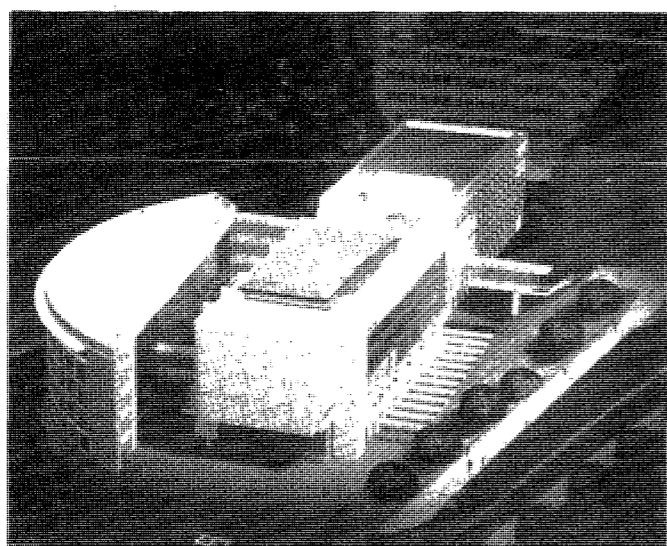
작은 물방울이 돌을 깨이게 합니다.  
 한가지 집념을 굳게 가지고 노력하면  
 뚫든 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

## 포항제철





### ◆내년 완공 예정인 '학술문화회관' 용도는 교수회관 포함한 중앙도서관 크기 ... 부족한 공간문제 해결



긴 직사각형과 반타원형이 약 30°의 각을 이룬,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채기 같다는 화강석으로 단장한 건물.

바로 내년(96년) 2월22일 완공 예정인 학술문화회관의 모습이다.

동국대 옆 제향군인회가 있던 토지를 본교가 서울시를 거쳐 지난 88년 6월 매수했고, 지금 이 자리에 건설되고 있는 학술문화회관은 건립 배경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현재 학내에 산재해 있는 공간 문제 해

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94년 2월 21일에 착공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학술문화관은 주식회사 간삼이 설계를, 금강종합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이달말에 골조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49%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학술문화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내년 준공예정 시간까지 준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담당자인 관재과의 김재선과장은 말한다.

층별 면적 및 총 면적을 살펴보면 △지하 2층=3160.96㎡ △지하 1층=4358.99㎡ △지상1층=3240.91㎡ △지상2층=3620.64㎡ △지상 3층=3391.33㎡ △총 면적=17772.83㎡이다.

이는 중앙도서관(교수회관 포함)보다 1천7백50㎡정도 더 넓은 면적으로 교수회관을 포함한 중앙도서관보다 조금 넓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 이공간은 표준 강의실(6.9X 7.

2)이 약 1백20개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다.

문화관 내부의 용도는 대부분 미정이지만 공사의 편의를 위해 실기실, 강의실, 행정실 등으로 개략적인 구분은 이루어져 있고 확정된 것으로는 중국장, 소극장, 스튜디오, 세미나 실 등이 있다.

중극장은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까지 걸쳐있고 5백석의 좌석을 갖춘 예정이며 지하 2층의 스튜디오와 소극장은 본교 연영과가 사용할 예정이다.

또 지하 2층은 강의실 등은 없고 공조실, 기계실 등 건물을 움직이는 제반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학내에는 아간강좌 신실학과 학회실 문제를 비롯해 학생회관 공간 문제, 공과대 공간 문제 등 많은 공간문제가 산재해 있다.

건립 배경과 모든 이의 바람처럼 학술문화관 완공으로 공간 문제가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박대용 기자)

### ◆개교 90주년을 바라보는 '학생회관'의 제 모습 찾기 규격화·현대화·공용공간·락카를 설치, 세계화 향하는 시설

학생들의 공간인 '학생회관'의 제 모습은 무엇일까?

개교 89주년이라는 긴 역사만큼이나 학생회관의 시설은 그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다. 너털너털한 창, 어두컴컴한 조명, 벽을 통해 들리는 옆 동아리방 소리, 지저분하게 놓여 있는 운동장비들, 머리위에서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쥐들이 바로 그것이다.

생활의 자동화와 국제화·세계화를 부르는 이 마당에 위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우리 동국인들의 참을성도 알만하다. 하지만 우리도 몇몇이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생이니 몇몇 동아리학생뿐 아니라 전체 학생들에게 열려 있는 말 그대로의 '학생회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부터 개교 90주년을 맞이하려는 '동대'에서 학생들의 자치공간인 학생회관을 그려보자.

첫째, 무분별하게 짜여진 구성을 합리적으로 바꾼다. 본과마다의 특성을 고려해 층별로 모아야겠다. 그러면 서로 도와 이해하며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둘째, 작년과 같이 방이 없어 더 부삼이 하는 동아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방크기를 규격화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통일된 목소리가 나올지 우려된다. 방이 큰 동아리는 자기들의 공간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공동의 공간을 만드는게 어렵지, 공연본과 학생들이 좁은 동아리방에서 할 수 없는 연습도 하고 학술분과 친구들이 세미나를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시설을 완비하고 현대화해서 사용자 혼돈을 줄이기 위해 관리자를 분과별로 책임지던 내렸다.

또한,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음악·영화감상실도 있어야겠다.

네째, 운동동아리를 위한 공용공간으로 락카를 설치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놓여 장비를 널려놓지 말고 한 곳에 모아두면 깔끔하고 인상도 좋다.

이것은 환풍이 잘 안되는 장소를 이용하는데 옷들을 말린 후 보관하면 곰팡이도 습지않고 창결하다.

다섯째, 학생회관 외부에 있는 연구실과 학생회관이 부족한 이상 황에서 약간이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동국대·과학관에서 학생회관까지 멀다고 하지만 건기운동도 하고 좋지 않을까.

물론 창문, 조명, 바닥, 천정, 안전장치 등은 전면개보수를 해야겠고 각 동아리 별로 전화가 설치되며, 필요한 책상, 의자, 탁자도 교체해야 한다. 한편 서로의 동아리에게 피해를 안 줄려면 방음은 필수.

대학종합평가에서 점수따기 위해서라도 좋다. 바꿀것은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학생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학교측의 활발한 연구검토가 함께 해야겠다.

타대학에 다니는 친구에게 "우리 학교는 70년대 시설이다"라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기가 내가 활동하는 동아리방이야"라며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김은혜 기자)

### ◆개교 1백주년 기념 사업 본부장 한보광(선학)교수를 만나 동국인 의지 모아 제2동국 중흥 이룩해야



지난 10일 개교1백주년기념사업본부 사업추진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개교1백주년 기념사업본부는 지난 92년 12월에 개교90주년 기념사업본부로 구성된 이후 지난 93년 12월 현재의 '개교1백주년기념사업본부'로 바뀌고 지금까지 동국발전 기금으로 60억여원이 모금되어 있다. '동국발전기금' 조성등을 사업목표로 발표된 개교1백주년기념사업본부 사업추진기본계획에 대해 전 정각원 원장이 언던 한보광(선학) 사업본부장을 만나 자세히 들어보았다.

△발표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새로운 사업본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전의 개교1백주년 기념본부와의 차이점이 있다. =이전 사업본부가 자금 유치와 관리가 주 업무인것에 비해

새로운 사업본부는 기금조성부터 기부자 관리업무뿐 아니라 학부도, 불교계 등 교외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때 공식행정기구로서의 발전협력부처로의 조직위상을 띄어 규정상 제정된 이전 기념사업회 하부조직보다 활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동국발전기금'조성과 교외협력체계의 구축을 사업목표로 발표했는데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은

= '동국발전기금'조성 사업은 1백주년사업본부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동국발전의 구체적 목적사업별로 또는 특정대상별로 불교종합병원연합기금이라든지 금강체육진흥기금 등 단위별 관심분야를 구별하여 모금사업을 추진하며 여기에서 1백주년기념사업본부는 모두가 다 같이 발벗고 나설수 있도록 구심적 역할을 해 주는것이 중요하다.

오는 98년까지 1천억원을 모금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문들에게는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을, 불교계 동문이나 관련인사들에게는 만불(萬佛)모시기 운동을 전개하고 각 지역 단위로 학부모의 총장 간담회 등을 구성해 교외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동문과 기부자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효율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본교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라면

= 학교발전은 몇몇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교, 동창회, 재단, 종단 등 모두 합동이어야 되고 학교발전을 위한 내부의 뜻이 모여지는데 중요하다. 본교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여 제2중흥을 하기 위해서는 흠어져 있는 학교발전 의지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해결할 과제라 생각한다.

△개교1백주년기념사업본부장으로서 앞으로의 각오는

= 발전기금 조성이 유리한 사립대학에 본교가 5번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바로 불교종립대학이라는 위상때문이라 여겨진다. 비록 '불교종립대학교'가 타종교인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본교가 유일한 불교종립대학이라는 점에서 불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부장'이라는 자리가 맡겨진 것을 부처님의 뜻으로 알고 '과주승이 되자' 학교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기부자관리를 통해 기금 조성운동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운동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곽주승 기자)

### ◆1억원 장학기금 기증한 고 권오철(경제학)교수 미망인 강숙자 여사를 만나 "학점 제한없이 성실한 학생에게 지급됐으면..."

"학교 신문사요?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너무 부끄럽네요" 처음 인터뷰를 부탁하려 전화를 했을 때 강씨는 당치도 않다고 말한다.

지난 2월28일 위암으로 7개월간을 투병하다 별세한 고 권오철(경제학)교수의 미망인 강숙자씨는 지난 4월12일 1억원을 장학기금으로 본교에 전달했다. 강씨는 권교수의 미망인으로 본교 영어영문학과를 69년 졸업한 동문이다.



늦게서야 못한 형편에도 교인의 뜻을 기려 후학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장학금을 기증한 강씨를 만나기 위해 중구 신당동 6가에 위치한 현대아파트 1동 111호를 찾아갔다.

"애초부터 기증할 생각해서 결심하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더 큰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필요" 강씨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학교에서 너무 크게 치하하는것 같아 부끄럽다고 말한다.

경에서 독학한 권교수는 평소 자기와 같이 가난한 후학들이 배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필자를 해야겠다고 자주 말해왔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평소 강연료, 저작권, 방송 출연료를 전부 저축 했으며 동료교수 및 친구들과 차를 마시거나 식사하는 시간도 아끼아와할 정도로 뜻을 이루기 위해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했다고 한다.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학점제한이 있죠? 이 장학금은 학점제한 없이 공부는 잘 못해도 성실한 학생에게 지급됐으면 좋겠어요" 학교학생이 아간강좌 학생까지 8천명이 넘는다는 말에 강씨는 너무 적은 돈이어서 별 도움이 안되겠다며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교인의 뜻을 따라 자신이 해야할 일을 해서 매우 흡족하다는 강씨는 앞으로 교외에 기부금도 조금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백도나 기자)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삼성

## 윈도우용 한글 글꼴의 정상에 훈민정음 4.0이 있습니다

■훈민정음 4.0 제품구성  
\* 기본 ₩65,000  
(3.5" 플로피 디스크 108매 구성)  
\* 기본 ₩45,000(₩185,000 구성)  
(2.5" 플로피 디스크 108매 구성)  
(3.5" 플로피 디스크 108매 구성)  
\* 옵션 기어는 VAT 포함, 별도구매 가능

니가 한글을 제대로 배우려면 훈민정음 4.0을 배우라

이런저런 윈도용 폰트는 백성이 제 뜻을 시러 퍼지 못할뿐 아니라 내이를 위하여 새로운 훈민정음 4.0을 배우라

니가 한글을 제대로 배우려면 훈민정음 4.0을 배우라

### 멀티미디어의 삼성전자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한글 글꼴  
훈민정음은 뛰어난 안정성과 편리성을 자랑합니다

- 원도우 환경에 알맞은 최적의 한글 글꼴입니다.**
  - 안정성있는 윈도용 운영방법 제공
  - 60종의 훈민 서체 모습 등 각종 자원을 타 응용 프로그램과 공유
- 우리정서에 맞는 특별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 한영 모타 자동 전환 기능
  - 가로/세로 혼용 문서의 사용 가능
  - 일본어 발음 입력, 고어 입력 및 확장 한자 제공
  - 온라인 방식의 세로쓰기 기능
  - 원고지 형태모양 보기 및 출력 가능
  - 한글/영문 서체 구분 및 1% 단위의 정, 팽해 지원
-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그래픽기능을 자랑합니다.**
  - 한자 단어 일괄 변환 기능
  - 자유로운 통바의 모양 및 크기 변경
  - 빠른 메뉴 제공 및 빠른 서식 모드 전환
  - 다양한 이미지 파일 입력 및 편집
  - 시각적, 마우스 등 31종의 도형 템플릿 제공 및 태두리 지정
- 사용자의 요구 반영으로 편리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87종의 계산기능을 갖는 도표 및 워드 쉬트 자체 내장
  - 글자 꾸미기(고운글)기능 및 텍스트 수순식 지원
  - 메이머지 및 라벨 만들기 제공
  - 한영 맞춤법 검사기 및 브리핑 기능 제공
  - 영한/한영, 일한 한영 전자사전 제공

\*다른문서 불러오기  
\*도스용 한글 2 X(속성포함)  
\*한글, ASCII 등

\*확장팩에서 제공하는 기능  
\*한글 60종, 한자 5종  
\*한글/영문, 영문/한글, 영문/영문 등(영어 서체)

UP GRADE WITH 이디얼 (훈민정음 전문업체)  
1. PC통신을 통해 업그레이드 가능  
(아이텔, 선진, 새누리) 60 엔터  
2. 전화 한문화본 신청도 가능  
3. 전국 어느곳에서든 2일 안에 배송가능  
4. 전화주문: 080-023-7200, 02-705-0623

■PC통신(아이텔/선진)훈민정음 개발자의 민남  
\* O/S 동호회, 윈도우용호처, DTP 동호회를 이용하세요  
\* 무엇보다 친절하게 대답해 드립니다

■훈민정음 교육센터

서울: 동진 (02) 875-7583	대전: (042) 633-5781	수원: (0331) 257-4034	제주: (064) 57-8330
부산: 남진 (051) 620-3855	광주: (0431) 89-0375	안산: (0345) 86-1566	
인천: (032) 393-3865	부산: (052) 529-3723	부산: (052) 347-0215	
신성: (02) 953-0185	창원: (0551) 62-2550	전주: (0652) 242-2133	안양: (0343) 41-6078
목동: (02) 608-0430	대구: (053) 742-5537	인천: (032) 424-4764	원주: (0371) 731-6916

■훈민정음 전문 유통업체

* 소프트라인: 581-7800	* 삼성전자 전국 PC전문점
581-2500	에서도 판매합니다.
* 한국소프트: 711-2700	
* 이프라인 빌리: 704-4277	

특별칼럼

고속 성장열차

벌써 5월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몰려 있는 5월을 사람들은 푸르다고 한다. 푸른 세상,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꽃처럼 흐드러지고 어버이 사람이 강물처럼 흐르고 스승의 가르침은 큰나무처럼 우뚝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이 5월에는, 하지만 대구 중학생들의 어처구니없는 죽음과 부모들의 애절한 울음소리에 5월이 열렸다. 가슴법새가 자욱한 95년의 5월.



김택근

세상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우리들의 아이는 어디서 뛰어놀고 있는가.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들의 선생님은 어디서 무엇을 가르치실까.

우리 주의를 돌아보자. 아이들은 잡지식을 배우며 꿈을 꾸고 우리들 아버지는 시골 빈집에 홀로남아 늙고 늙은 고향을 지키시고 우리들 선생님은 찾아오는 제자의 이름을 떠올리다 끝내 열병이나 뒤적이고 있다. 어린이날을 징해놓고 모든 어린이들이 대중원에 끌려가고, 어버이날을 징해놓고 일시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스승의 날엔 똑같이 절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엄청난 현실(정치개혁)의 허망함, 군중에 휩쓸리며 세태에 편승하는 교향합, 신랄도 눈물도 분노도 없고 앞사(前事)를 눈여겨 보는 이 비경향.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것들이, 슬펐던 것들이, 슬픈 열차는 이제 멈췄다. 슬픈 미풍양속과 정의와 사랑의 빛깔과 풍요를 향해 달렸던 저 고속열차는 끝내 시대 정신을 빼버리더니 총창한 물꼬로 멈춰 섰다.

은갖 빛과 악취, 추악한 생각들을 쏟아내는 고철덩어리, 어머니, 고령, 우정, 효도 등을 와이간 성장열차. 이제 더더욱 정신없는 풍요의 대항적이 시작되었다. 연인 버치는 대항사고와 그보다 더 무서운 우리들의 불감증, 집단이기의 총동, 부의 횡포, 이 봄날 우리들은 무엇을 버려야 저 피어오르는 나무, 꽃, 잎, 풀잎의 속살 속에 섞일 수 있을까.

우리들의 무엇을 버려야 저 대구에서 숨겨진 어린이들의 영정에 그나마 꽃한 송이라도 놓을 수 있을까. 아이들 아이로, 어버이를 어버이로, 스승을 스승으로 되돌릴 시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들의 세상은 어디에 있을까. 찬란한 5월의 햇살은 그래서 눈물이다.

한국편집자회 회장

교수기고 사회 총체적 '함량미달' 현상들

끊임없는 자질검증으로 사회병폐 없애야 누구에게나 공정한 객관적 기준 적용 필요

박교수

(생명자염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대스컴을 대하다보면 이 세상에는 각종 각색의 현상들이 많기도 하다. 그래서 영상매체와 활자매체가 끊임없이 쏟아내는 뉴스도 가지각색이고 끝이 없는 것 같다. 이에 편승하여 상승기류를 잘 타고 재주를 잘 부리다 보면 하루아침에 뜰스타가 되기도 한다. 만든 상품이나 지적재산권이나 각계각층 인물들까지도 매체를 타고 상승기류에 편승해 시류를 타고 꼭 요를 부리는 일이 많다. 한시절 잘 만나면 빛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는 항상 실제적 함량이 문제가 된다. 비포장도로를 날리는 빈수레는 요란하기만 하다. 그러나 덜그럭거리는 수레에 두꺼운 짐이 실리게 되면 갑자기 조용해 진다.

무식해야 용감하다? 요즘은 신문지상이나 영상매체를 통한 사례는 너무 많은 맑은물을 보게 된다. '무식해야 용감하다' 무식하다는 것은 글을 몰라 그런것은 아니다. 지혜롭지 못하여 함정임을 못보는 개구리 우물안식 다 양한 전문성이 결여된 위인들의 처신이 계속해서 저질러지는 일들이다. 실수연발의 결과에 대하여 장차에 타차에 할 과제를 양산하여가며 끝없이 자기편견을 말살하고 불모지로 초토화시키는 위인들을 일컫는 것이 아닌가 싶다.

'권위'란 말이 있다. 당당히 자기가 권좌에 올라 앉았으니 섬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릇된 물줄기를 돌아선 민심은 막을 길이 없었다. 믿고 섬길 만한 그 무엇이 없는데 신봉치도 못한 것을 한 몸을 누가 섬기겠다는 것인가? 끝내는 [여사의 정문회 당시의 말이다. 우리는 핵이 없어서 이렇게 당한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차에 올라 BD사(寺)행차에 눈물길기 보였다. '권위'란 의미는 우리는 착각하면 안된다. 이는 끝없는 신앙생활과 같이 보라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끝에 얻어지는 결과이다. 각자 보라된 길의 제자리를 찾아 한평생을 노력해도 말하지 못하는 경지! 신(神)의 세계, 선의 세계이다. 자기 스스로 군림한다고 되는 일인가? 학벌과 경력의 겉포장을 잘 갖추었다가 실체가 드러난 가짜박사소용!

유명백화점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같이 비로 겉포장을 둔갑시켜 일어난 소용! 김일성 못지않게 내란이 무서워 '권위'를 강요한 '권부'들을 지켜준 국외 일부군 경호단의 나뉜 먹기식 개국공진사리의 결

포장식 상품과 그 황홀함에 빠져! 당혹해 하는 성실한 국민들의 외면! 그리고 분노의 결과!

사법부 개혁 함량미달

사건감정(死因鑑定)의 썩은 오류를 잡기 위해 사법부검의 기상천외한 기발한 발상이 필자의 눈에 잡혔던 일이 있었다. "자연사(病死)를 중독사(中毒死)로 둔갑" 국민들이 그렇게도 크게 갈망했던 사법 개혁을 원장단 단행했다. 그것도 범용적 놓고 꼭꼭 숨어서 각계인사라고 이름 붙여진 함량미달의 내용이 과대포장된 채 조작품을 펼쳐낸 그들 대로는 수작품이었다는 것이다. 대생적으로 썩은 사법부라는 이미지는 없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인맥 끼리끼리의 겉포장만 번드레하게 화려한 내면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방상에 꼭꼭 숨겨진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를 본 대다수 국민의 지식인과 각 대학의 이상이 있고 철학이 있는 법대교수들까지도 발레같이 일어났다. 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제갈길을 못찾고 눈먼길을 계속 해대니 말이다. UR문제와 WTO문제는 '법조문'만 녹음했다가 토해낸 '녹음기'는 수준의 단순기능성 행정이나 법조인 수준으로는 잣대가 맞지 않는다 다양한 전문성의 과학기술인력과 행정력과 여타 법조인이 요구되는 세계화의 시기가 다. 국가의 흥망이 좌우되는 최고 수준의 각계 전문성의 기초과학 분야와 무역 등 기타 '지적재산권'에 이르는 각국간의 상호이해의 큰 문제가 갈등을 빚고 도사리고 있다. 가령 특허권에 관한 일만, 하더라도 시간은 돈인데 '새기술과 새상품'의 생명은 몇개월도 못가는데 반하여 재판과정은 십 수년이 걸린다고 가정한다면 사법부 생리가 나라 망치는 생리도 밖에 국민들 눈에는 비쳐지지 않는다. 자칫 잘못하여 천문학적 숫자의 연구개발비와 시간과 인력의 총화로 나타난 국적이 북마전(伏魔殿) 속에서 녹아나고 심증을 갖게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사회적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지도 못하게 그 변화의 선도를 나아가려는 우리 법률계의 열린 마음이 열리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날의 사법계의 문제의 의식과 심각성을 못느낀데에 더 큰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심각한 경제 전경에서 약속과 약속의 냉엄한 현실에서 발상 빼앗는 소란만 지상에 요란하다. 합리주의가 통하고 과학의 최첨단을 걷는 자태를 걷는 선진국들의 세상에, 갑자기 들쭉날 UR, WTO에 벽이 허물어져 갈라죽는 후진국 국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요란하다. 다양한 전문성을 요하는 국제관계는 사법부 뿐이랴! 겉포장된 일부 공직자나 일부 지도층이라고 하는 자들의 실제적 함량미달이 가세한 작품은 더 말이 아닌듯 하다. 나라를 좀먹는 사람이 오직 '이완용'뿐이랴? 지극히 적은 이권에 눈이 어두워 방방한 다들뿐 외세를 앞세워 조국을 등지고 자기의 사익을 그르치는 자는 자기자기가 다임책임인 셈이지! '미국식 로스쿨'의 시행은 필연적인 코스요 다양한 전문성의 법조인과 기술행정가는 이 나라를 지켜야만할 굳건한 힘과 방파제가 되며 시간을 다루는 중재적인 일인 것이다. 아마도 김영삼정부의 사법부 개혁의 핵심적인 의중은 현시대에 비추어 볼때 오늘날의 사법부의 진단 결과 잣대논리의 스케일이 잘못 선택된 관행과 타성이 낳은 사법부의 양치불능의 증병에 걸린 '기능상실증환자'들로 판정하고 우리국민과 신시대가 바라는 바 대로의 바른 길로 잡아주고 갈 수밖에 없다는 의의인 것 같다. '포정전'의 개봉기가 교수회의실 일구에도 걸릴 모양이다. 함량미달의 요란스런 겉포장은 DNA기능구조와 발현되는 기능성과 더불어 유전자 분석에 의한 자질검증이 필요하다.

양한 전문성을 요하는 국제관계는 사법부 뿐이랴! 겉포장된 일부 공직자나 일부 지도층이라고 하는 자들의 실제적 함량미달이 가세한 작품은 더 말이 아닌듯 하다. 나라를 좀먹는 사람이 오직 '이완용'뿐이랴? 지극히 적은 이권에 눈이 어두워 방방한 다들뿐 외세를 앞세워 조국을 등지고 자기의 사익을 그르치는 자는 자기자기가 다임책임인 셈이지! '미국식 로스쿨'의 시행은 필연적인 코스요 다양한 전문성의 법조인과 기술행정가는 이 나라를 지켜야만할 굳건한 힘과 방파제가 되며 시간을 다루는 중재적인 일인 것이다. 아마도 김영삼정부의 사법부 개혁의 핵심적인 의중은 현시대에 비추어 볼때 오늘날의 사법부의 진단 결과 잣대논리의 스케일이 잘못 선택된 관행과 타성이 낳은 사법부의 양치불능의 증병에 걸린 '기능상실증환자'들로 판정하고 우리국민과 신시대가 바라는 바 대로의 바른 길로 잡아주고 갈 수밖에 없다는 의의인 것 같다. '포정전'의 개봉기가 교수회의실 일구에도 걸릴 모양이다. 함량미달의 요란스런 겉포장은 DNA기능구조와 발현되는 기능성과 더불어 유전자 분석에 의한 자질검증이 필요하다.

자질검증의 필요성

과거에도 수많은 되풀이하여 뒤편을 지행했던 어느 지방기초의원도 그 맹행이 계속되어 과거의 전과실이 뒤늦게 표출되어 자질검증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떠올랐다. 제갈길을 가지 못하고 끝까지를 누비며 시간만을 좀먹는 정치꾼들의 총알은 일반동경시장을 뺏은 일반국민들의 수준에서 위듯이 많은 선거를 앞둔 우리 국민들은 함량미달된 풍들의 엄격하고 냉철한 제도로하여 자질검증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깨끗한 선거, 돈 안드는 선거,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인재의 선출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에 초반부터 베그더 거머쥔 채도를 탈선하는 일부 정치권이 김영삼정부의 의지나 국민들의 바람이 어떠한 선거 결과로 나타날지 지극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나간 시기를 보면 가짜박사를 짚고 목사노릇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고액연금이 오고가는 가짜박사증을 다방에서 거래하고 남의 명의로 가져와 의사노릇을 한 일도 있다고 한다. 수많은 평가절차에서 이미 함량미달로 판정되어 자질검증이 요망하고 말게 되었을 지라도 잠수(潛水)를 해서 조용히 지내야 한다. 그리고 중진이 다 될 때까지 미달된 함량을 채우고 기능성을 회복하여 자질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잘못된 상품, 기능상실증에 걸린 상품은 우수한 것으로 바꿔 과감히 폐기 처분하고 다시 분해하여 소재부터 바꿔 좋은 상품으로 다시 만들어야만 한다. 일반시민의 선거나 학원내의 선거나 생리적 기능은 마찬가지이다. 사람은 DNA에 의해 모든 지혜로움과 인격과 지식과 신체적 기능이 발휘된다. DNA구조가 태생적으로 잘못된 것은 어느 환경에 교육을 시킬지라도 어느 수준이상으로는 끌어올릴 수가 없다. 우리의 교육방식이 암기 위주의 '녹음기' 기능수준의 단순기능성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진 인적자원상품 시대에 어느대학 출신이 비교우위라고 헛 자랑을 계속 해대는가? 개구리 울음식의 요란스런 메스컴의 떠들썩한 자태로 계속 우를 범하고 있는 일부기사가 같은 자질의 일부사법부 출신들의 제적을 찾아보라! 그 많은 떠들썩했던 일부 인재들은 '녹음기식' 단순기능의 작동수준 뿐이었고 이 사회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라! 국민의 수준은 보다 높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전문성을 요하는 기초지식의 심각한 결핍증에 걸려 아마도 그 노출을 두려워한 나머지 '에, 아니오'식의 기상천외한 재판절차를 창조하여 가동되다가 오늘날에 와서야 발병이 나자 거꾸돌린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중에서 보람되고 인간성을 되찾아 전문성을 지니고 창조적이며 공정성 확보를 갖고 지조를 지킨 포정전은 겨우 몇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아마도 이는 겉포장은 요란하고 잣대를 잘못 만들어 선택되고 생산된, 창조성이 상실된 인적자원 상품화 시대의 단순기능성과 다양한 전문성의 함량미달인 제도적 장기로 만들어진 제품인 탓 일겁니다. 유전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유전자의 계속적이고 극단적으로 악화된 집적회화현상이다.

공정한 표준준금 부제

인간의 능력은 끝이 없는 동시에 한계가 있다. 함량미달인지! 초과인지! 자질검증은 보편 타당성을 갖고 합리적이며 객관성과 신뢰성과 공정성을 띤 공통된 다양한 전문성에 걸맞는 규격의 잣대로 길이를 재야만 한다. 누구나 타고 다니기 쉬운 영상과 활자 매체를 잘못 타게 될 경우 함량이 미달된 것으로 자질검증 관정을 받은자는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자초하게 된다. 천박한 옆의 모사꾼들의 놀이에 같이 놀아나서도 안된다. 내가 타야할 수레인지 아닌

계속적인 검증이 중요

구준한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미 깊게 뿌리내린 짐초를 뽑고 다시 우수한 DNA기능구조를 갖춘 양질의 상품으로 품종을 갱신하려면 한번뿐인 좋은 기회를 잘못 살피게 되고 엄청난 에너지와 경제력, 정신적 부담을 끌어안고 수백수천 배의 노력으로도 다시는 되찾지 못할 우리의 기회가 영원히 날라갈지도 모른다. 함량미달 인지의 자질검증을 거치지 못한 실수로 앞을 보고 뛰어오만 할 처지의 경우는 더더욱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전락되어 다시 웃을 줄을 모르는 시간과, 우수한 인력과, 재정과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만 하겠다.

LG advertisement for '컴캅이 된 컴뻔' (Computer becoming blind). Includes a cartoon of a man at a computer, a photo of a man, and text describing the dangers of computer blindness and the benefits of LG's eye care products. The text mentions '컴캅이 된 컴뻔' and '컴캅이 된 컴뻔'.





◇ 우리학회실 종조?...신설학과 학생들은 학회실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달 17일부터 동국대 M동 4층 로비를 점거해 학회실로 사용하고 있다. (취재부)

## 등투 총화 결의대회 열려 학과통폐합·신설학과 문제등 논의

‘등투’를 뜻하는 총화와 4.5월 부정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가 지난달 18일 2백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도서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학과통폐합 전면 백지화 △야간강좌 신설학과 문제 △영석고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학과 학생회장 원진욱(3)군은 “지난 17일 기조실장에게 제안한 학과통폐합 전면 백지화, 학교발전을 위한 교수·학생간의 논의의 틀 보장에 대한 승구의 답변이 오늘 도착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지금

까지 합의 이행이 제대로 된 적이 없었나”고 “투쟁을 늦추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 야간강좌 총학생회장 황인구(영문3)군은 “전임교수, 학회실 없이 어떻게 수업이 가능하고 어떻게 동국발전이 있을 수 있나”며 “학교 당국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땐 야간강좌 학생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생지대 학생회장 박동혁(생명자원경제4)군은 영석고 교사 징계위원장 김주필(응용생물학)교수 퇴진을 주장했다.

## 95년 임금인상을 8% 체결 직원중심 행정연수 합의

직원노조(위원장=김윤길1백주년 기념사업본부) 95년 임금인상율이 8%로 체결되었다.

직원노조는 학교발전을 위한 이례적 측면으로 8%로 부분 정리를 했으며 이번 단체협상에서 정장환의 사장은 직원 해외연수를 확대하고 본교의 자매대학인 미국의 메인

대학에서 3주간 영어 행정연수를 실시하면서 하계방학중 직원중심으로 행정연수를 하는 것이다.

직원노조 관계자는 “물가인상률과 타대학 임금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학교 실상을 이해하 수용한 것”이라 말했다.

## 사범대 1학년 LAB보강거부 시간대 불합리성등 문제제기

사범대 1학년 전체 학생들은 지난 4월 17일부터 시작한 LAB 보강 수업을 지난달 27일 학교 당국의 통보행정, 시간대의 불합리성, 불충분한 행정이행, LAB보강수업 출석에의 학적 반영등을 이유로 전면 수업 거부에 들어갔다.

이와같은 수업거부 결정은 사범대 1학년 전체 과대표회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이에 교무처(처장=장오현·경제학)는 수업 시간의 변경과 출석에의 학적 반영을 가산점으로 전환,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범대 1학년 학생 전체는 오늘

(3일) 오전 9시에 사범대 학장을 방문해 사범대의 LAB 수업거부 내용 대다부분을 훼손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교무처의 LAB 수업에 문제가 발생한 배경에 대한 생각, 교수의 대학원생으로서의 대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 요구를 할 예정이다.

1학년 LAB보강수업은 학생들의 영어회화실력을 높인다는 취지인데 지난 4월 17일부터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진행됐으며, 이번 1학기는 권장사항이던 2학기부터는 의무사항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불패의 애국대오 제3기 한총련 출범

## 4일부터 6일까지 경북대서

제3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정태홍·고려대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 출범식이 ‘갈라진 50년, 허망의 95년 새세기를 예비하는 단신은 대학생 민족 민중을 돌아보는 그대의 이름은 청년, 백만청춘아! 아름다운 대학시절, 통일조국원년을 노래하라’라는 총가치어래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다.

한총련 제3기 출범식의 전체일정 및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일 오후 4시~전체집결 및 식사, 7시~전야제(조국의 별과 함께 아름다운 대학시절), 밤 11시~속소별로 조별토론 및 총화후 취침.

△5일 오전 9시~백만청춘이 함께하는 통일 마당으로 각종 강연회, 토론회, 공강회, 음악회, 문화제, 연극, 작은 영화제등 다양한 행사와 내용으로 이루어 진다. 오후 2시 30

분-영화제, 춤, 개그, 개사극, 중국 한마당 등으로 이루어진 부문별연합 한마당, 8시-본출범식으로 연대사 및 축사, 이 시대 시대정신과 대학 시절, 의장 송림식과 출범 선언 이후 대중 마당이 이어진다.

△6일=오전 11시~5·18투쟁결의, 지자체 투쟁결의, 6·3대회결의로 이루어진 6월지자체 승리와 통일원년 맞이 위한 한총련 백만학도 결의대회, 오후 1시-시민학생한마당.

또 행사기간동안 △역사거리 △한총련과 나의 거리 △조국통일의 거리 △경북대의 거리 △각 지역에 서 준비하는 거리 △부문별연합 △전국연합 ‘시화전’거리 등의 각종 전시 및 선거거리가 진행된다.

## 모교방문행사 실시

교무처(처장=장오현·경제학)는 오는 15일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모교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강속자씨 장학기금 1억원 기증

## ‘권오철교수 기념기금’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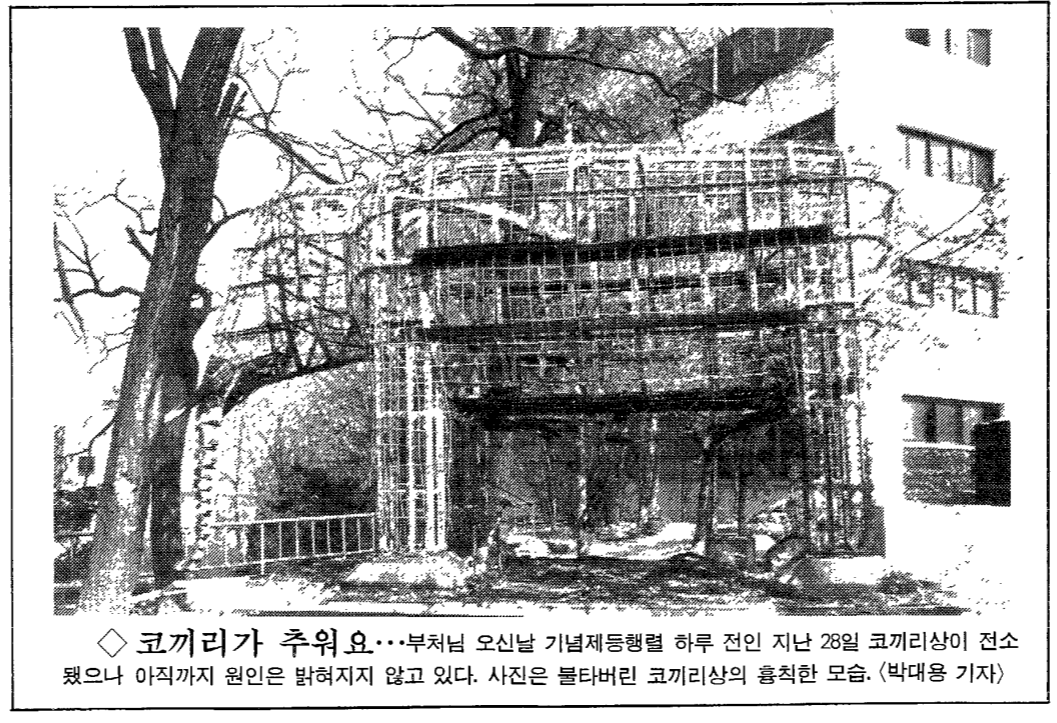
고 권오철(경제학)교수의 미망인인 강속자씨(영어영문 69층)씨는 지난달 12일 고인의 뜻을 기려 본교에 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기증했다.

어렵게 독학을 한 고인은 평소 자기와 같이 가난한 후학을 위해 원가를 해아겠다고 자주 말해왔고 이를 위해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증식에

서 강속자씨는 “어려운 형편임에도 고인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위해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송 총장은 “개교 이래 많은 분들이 장학기금을 전담해 왔지만 이렇게 뜻 깊은 기증금은 없었다. 고인의 뜻을 기려 공부를 잘하나 가난한 학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했다. 이 장학금은 가칭 권오철교수 기념기금이라 명명했다.

96년 2학기부터 이자수익금의 반으로 집행될 본 장학회는 경제학과 2, 3, 4학년 학생과 대학원생등가 정형권이 어렵고 성격이 양호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 코끼리가 추위요...부처님 오신날 기념제등행렬 하루 전인 지난 28일 코끼리상이 전소됐으나 아직까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불타버린 코끼리상의 흉칙한 모습. (박대용 기자)

## 부업알선율 82%

취업과(과장=황우열)에 따르면 지난 3월 본교 부업알선에 요청된 의뢰자수는 총 1천1백3명으로 이중 9백명이 알선돼 부업알선율이 8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부업알선율을 살펴보면 남자는 9백33명의 의뢰자중 8백41명이 알선돼 90.1%를, 여자는 1백70명중 59명이 알선돼 34.7%를 보여 여성의 부업알선율이 남성보다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알선된 9백명중 학내알선은 2명, 학외알선은 8백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 백상의 집

### 공사·업주선정 차질

북지사업 공동관리위원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공관위)는 위원장의 처우문제에 의해 지난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예정이던 백상의 집 공사과 사업주 선정등 공관위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위원장 김진철교수는 공관위사업의 중요성등에 비추어 책임수업시간의 감면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학교측은 책임시간 면제를 없애는 결정에 맞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마찰이 일어났다. 이로인해 공관위 운영위원회 교수회측의 불참으로 성립되지 않아 사업들이 보류중인 상황이다.

한편, 새 업주 선정에 따라 공관 위측이 단초 계획했던 백상의 집 전면 개보수 문제는 예산과 공간의 문제로 학교측의 구체적 논의후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25일 있던 입찰설명회는 12개의 업주가 참여했으며 이중 9개 업소가 등록을 하여 이후 공관 위 회의의 통한 선임자 결정만이 남아있다.

백상의 집 공사와 선임자에 대한 논의등 제반문제는 공관의 자체가 당연한 운영상의 문제가 처리된 후 이루어질 것이며 정확한 시기는 미 정으로 남아있다.

## 동국문학인회

### 8일 문학상 시상식

동국문학인회(회장=홍기삼·국어국문학)는 제9회 동국문학상 시상식을 오는 8일 오후 6시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갖는다.

본교출신 문인들의 모인 동국문학회에서 제정한 동국문학상이 9회 수상자는 사부문에 김경웅(‘불암산 선배네덕트 V’), 소설부분에 이계홍(단편 ‘거인’)으로 결정됐다.

## 총여

### 단위주체 연석회의

제10대 총여학생회(회장=김나영·교육4이하 총여)는 오는 12일 오후 5시 도서관 여학생 휴게실 문예와 생리대 자판기 설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제2차 단위주체 연석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 학·전·무·대

### 총추는 다리

○...육교의 성수대교회(?)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육교의 안전상태가 위험하다는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올라가거나, 뛰어서 지나가면 육교가 심하게 흔들려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괴하고, 특히 육교는 도로를 가로질러 위치하고 있어 무너질 시엔 큰 위험이 위태롭다는데, 위에 육교를 지나가던 한 시민 “대교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육교관리가 더 시급한 건 아닐지...”라며 한숨.

### 국가고시는 언제보나(?)

○...대통령의 종교는 곧 국교(?)

다름아니라 석가탄신일을 얼마 앞두지 않을 때에 부활절이라는 이유로 국가고시인 경쟁고시의 시행일자를 미루기로 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기독교의 입장에서 부활절이 중요하긴 하지만 국교도 아닌 종교에 대해 너무 편중적이 아니냐는 한 시민 “부활절, 성탄절, 석가탄신일 다 미루면 국가고시는 언제 보죠?”라며 우려의 한마디.

### 세계화의 여파

○...본교 1학년 학생들은 요즘 세계화의 여파를 몸으로 여실히 느낀다는데.

다름아니라 지난달 17일부턴 오전 7시30분에 실시하는 외국어 실습의 시간과 학업인정에 대해 학우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학업인정을 안하면 수업을 듣는 학생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잠이 먼 학생들은 이른 시각에 차 타고 오느라 피곤해서 잠시졸면 한 시간이 다가버린다고 한숨을 쉬기도.

이에 본 회전문대가 “세계화 두면이면 학생들은 밤새 잤네요.”

### 코끼리 웃

○...부드러운 여름도 아닌데 코끼리가 웃을 뻔했다(?)

다름 아니라 부처님 오신날 기념 제등행렬에 쓰일 본교 코끼리상이 제등행렬 하루 전인 지난 28일 새벽 불에 타 양상한 뼈대만이 남아 보는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는데, 더욱이 방화인지 실수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회전문대가 예타게 한마디 “제발 본교생에 의한 방화가 아니기를”

### 일본 대정대학(동경소재)단기유학생 후보선발

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협회(AIEJ)(일본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단기유학제도에 따라 1년간 대정대학(자매대학)에 교환할 본교장학생을 선발합니다.

- 인원: 10명(서울7명, 경주3명)
- 조건: 학비면제, 왕복항공료·생활장학금(월1만원)지급 (문부성지원) 기숙사(사이다마캠펙퍼스-1시간30분 소요)혹은 동경내 자비하숙
- 선발방법: 시험을 통한 공개경쟁선발(서울, 경주 소속캠퍼스에서 접수 및 선발)
- 응시자격: 전학과(단, 대정대 개설학과 및 관련유사학과 전공자에 선발시 우선 고려 가능함) 대정대 개설학과: 불교학과, 일본과, 사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 시험일시: 5월18일(목) (서울, 경주 동시 실시)
- 시험과목: 일어읽기(30%), 일어회화(30%), 학교성적(30%), 면접(10%)
- 접수기간: 5월9일(화)~12일(금)
- 접수처: 국제부(3024, 서울) 학생과(2054, 경주)
- 신청서류: 지원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각1부)
- 특전: 대정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점교류협정에 의거하여 인정함.

**국 제 부**

### 하계 본교미국어영언수프로그램 참가자모집

본교 국제부에서는 미국자매대학인 메인주립대학(동부 메인주소재)의 영어영수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 과정: 영어 토론편(영어와 미국문화 강의)
- 기간: 4주(7월31일, 월-8월25일, 금)
- 수업시간: 총 92-104시간(23-26시간/주)
- 수업내용: 읽기·쓰기·듣기·말하기·문법과 어휘력향상
- 학술규모: 한 학급당 8-12명
- 모집예정인원: 30명 내외
- 소요 경비: 총 약 ₩2,200,000  
내역: 학비: ₩700,000(10명이상시 학비의 10%감면)  
생활비: ₩650,000  
항공비: ₩850,000
- 접수처: 국제부(3024, 서울), 학생과(2054, 경주)
- 접수기간: 5월3일~5월31일(수)(신청서 현지예약금으로 \$200을 선납해야 함)

특전] 1.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본교교과 과목중 ‘해외영어영수(신설)3학점’을 인정할 예정임.

- 어학연수과정에 이은 정규과목수업을 위한 입학특권이 있음.
- 어학연수중 희망자에 한해 미국 동부지역관광 기회 부여(경비자비부담: 약\$200)

**국 제 부**

### 총학생회 새내기 새로배움터 부정기감사 결과보고서

#### 1. 감사 경과 보고

감사 시행세칙 8조 2항, 9조 2항, 10조, 11조에 의거하여 1995년 4월 8일(토)에 시행된 제27대 총학생회의 새내기 새로배움터에 대한 부정기감사결과 및 평가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자료접수일: 1차-1995년 3월30일(금) 17:25  
(자료내용이 부실하여 추가자료요구=>(주의)징계조치)  
2차-1995년 4월 7일(금) 13:30

나. 감사접수내용: 정산서, 사업기조, 행사일정표, 사업계획서, 사업평가서, 세부사용내역

다. 감사 시행일: 1995년 4월 8일(토) 11:09-12:33

라. 감사 주 체: 총대의원회 의장, 법과대의원회의, 이과대의원회의, 총대의원회 조직과, 감사국장

마. 피감사 주체: 총학생회장, 기획부장, 사무국장, 부총학생회장=>잠시 참석

#### 2. 감사내용과 평가

가. 사업감사

올해의 새터 준비는 총학생회 주도로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할 내용이다. 또한 단위 강화를 위해서 단위에 시간을 많이 분배하여 단위 자체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 준비 과정에서의 사업진행 또는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깔끔한 진행은 앞으로도 받아 안아야 할 성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중앙집중식 사업을 지양하고 단위 강화에 중점을 두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단위의 성과와 오류를 수렴하고, 각 단위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에도 불구하고 단위를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한 부분은 중대한 오류라 할 수 있다. 또한 작년과의 차이를 사업기조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진행 과정에서의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없었음이 지적됐다. 또한 사업 내용의 정확한 단위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이 지적되었다.

나. 예산감사

학생회 사업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용은 현재 사업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커다란 결핍들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번 총학생회 새내기 새로배움터 과정에서 각 단위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통한 예산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는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서도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사업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사업 준비과정에서 보여 준 철저한 조사 작업은 사업의 올바른 진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며 권장해야 할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결과가 나타난 18,000,000원(천팔백여만원)의 적자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방대한 액수의 적자는 예산 수립시에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가장 큰 원인은 학교측의 계속되는 비협조적인 태도(새터기간에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전화로 요구, 협의 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태도)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들을 학우들에게 곧바로 공개해 내지 못함으로써 고립적이고 외로운 투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다. 총괄평가

새터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학생회를 사랑하는 학우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어 있었으며, 대안에 대한 궁금증 역시 증대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감사의 과정 상에 있어서도 총학의 감사자료 미제출과 자료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빈약하여 감사시행이 어려웠던 감사과정에서 총대의원회 중앙위원회 산하 중앙감사특위에서는 (주의)라는 징계를 내리고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감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총대의원회 중앙감사특위에서는 총학생회 주최의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원칙을 정하였으나 가능한 원칙에 기초하여 감사를 시행키로 하였다.

감사결과 새내기 새로배움터 부정기감사에서 몇가지 성과와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 제27대 총대의원회 감사국

영화의 패러독스

변영주 감독 '낮은 목소리: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것'

실제인물 인터뷰 방식...진실 깨달음에서 오는 희열 체험

정재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다큐멘터리 장르가 일반 대중 상업 영화 개봉관에서 상영되는 일은 필자가 알기론 이번이 우리나라 최초가 아닌가 싶다. 얼마전까지 있었던 대한 뉴스나 지금도 분영화 상영 전에 불어지는 국책 홍보 문화영화는 예외로 하고 말이다. 이번에 영화제작소 '보인'의 변영주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는 같은 다큐멘터리 장르내에서도 그 성격이 현격히 다른 본격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이다.

이번 영화 '낮은 목소리: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대중에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들 속에 얽혀진 존재하면서도 왜곡되어진 일제 강점기 조선 정신대의 실체를 낱말이 드러내고 있다. 이 영화는 과거 정신대로 끌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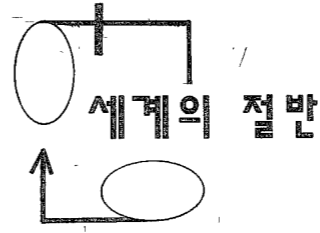
모진 고생을 했던 실제 인물들을 만나 인터뷰를 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 외에 이 영화가 기법적으로 특별히 고려한 흔적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인물을 직접 다룬다는 그 방식은 모든 자질한 기법을 오히려 초월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에 놀랄 뿐이다. 그게 바로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강점점의 하나인데, 실제인물의 직접 인터뷰 방식은 그 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적, 정서적 합의점만 찾아낸다면 새로운 사실, 정직한 진실을 깨달았다는 희열감으로부터 오는 진한 감동의 체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영화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구성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신대 할머니들의 시위현장과 서울에 소재한 나눔의 집이라는 공간에서 모여 사는 국내외의 정신대 생존자 할머니들, 중국으로 끌려다가 일본군이 "바리교"라는 바리

교에 할 수 없이 중국에 남겨 된 정신대 할머니들, 이 세부분의 내용을 이다. 영화 속에서 정신대의 끔찍한 체험담을 들다보면 이들이 모두 "여자로 태어난 죄" 때문에 오로지 당해야만 했던 일들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전쟁의 반대, 평화의 옹호라는 차원이 아닌 역사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남성의 일방적인 여성차별적 시각을 읽어낼 수 있으며, 바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남성들/정치체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한 여성들은 그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무엇을 주장하여야 할 것인지 불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또한 이 영화는 단지 과거의 체험담만 이야기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들은 과거에 그들을 할거렸던 간 사찰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동시에 현재 이들이 병탄한 조국에서 혹은 이역만리 이방에서 어떠한 비참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것인지도 짚어보게 보여준다.

현재 그녀들이 처한 삶의 공간을 지켜볼 때면, 그녀들이 단지 정신대 할머니들이어서 그토록 애처롭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소외되고 극빈 상태에 놓인 보편적 도시 빈민의 얼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이다. 할머니 중 한 분은 끊임없이 같은 말만 되풀이 한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다." 인간이 이와 태어났으면 애초부터 한 번 살아보고 해야 할 텐데, 자주 죽고만 싶다는 그 말보다 더 처절한 말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 영화는 정신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인권에 있어서 어떤 계급적 평등같은 문제까지도 논하지 않는다는 점이 보인다. 물론 그것이 전면에 부각되는 주제는 아닐지라도 인간이든 다같이 평등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음이 분명하다. 당연하다. 정신대의 고통은 이 여성 할머니들만의 몫은 아닌 것이다. 그건 차라리 우리 모두가 공동 부담해야 할 무게인 것이다.



④가부장적 가치의 '투철'한 내면화

여자는 여자일수 밖에 없다?

지난해 미국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뉴스의 초점이 되고있는 사건이 바로 오 제이 심슨의 전처와 정부 살해 혐의 일 것이다. 심슨의 행적을 추적하는 텔레비전 방송의 취재 경쟁도 대단한 것이어서 이 사건은 마치 한편의 극적인 범죄 영화를 연상시킨다. 그와같은 이상 열기를 가져온 배경에는 심슨이 미식 축구 선수였다는 점 외에도 인종 문제와 성도발 문제 등 한창 미국 사회의 중대 사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3월13일자 '뉴스위크'지는 이 사건과 연관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다. 그것은 심슨 사건을 주도하고있는 여검사 마르시아 크라크의 가정 문제에 관한 것으로 여성 문제의 쟁점으로 부각될 만한 것이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전남편 고든 크라크가 심슨 사건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마르시아를 상대로 부아들에게 대한 양육 우선권을 신청했다. 컴퓨터 기술자인 고든은 어머니의 유명세를 치르느라 부모의 손에 받치려 노력해온 아이들을 일정한 기간 자신이 맡아 키우겠다고 주장

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이혼이 성립되면 양육 우선권이 어머니에게 주어지며 일정한 기간 양육비를 아껴지자 지불해야 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아버지 측이 아이들을 도맡는다. 또한 크라크 부부의 경우처럼 성공한 아내를 상대로 딸 성공한 남편이 양육권을 신청하는 예도 거의 없다. 이같은 차이는 여성의 권리 보장이나 사회 진출에 있어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낙후되어있는 한국의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서구 여성주의 운동은 18세기 '여권옹호론'을 펴낸 윌스톤 래프트 이후 지금까지 무려 2백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다. 그 기간동안 슬한 여성운동가들이 시종적으로 좌절로 점철된 세월을 극복해가며 이론과 실제에 있어 여성주의를 정착시켜왔다. 그에 비한다면 한국의 여성 운동은 아직 결속이 단결이 미미하며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치를 우리의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여성 자신의 가부장적 가치의 '투철'한 내면화와 그에 대한 인식 부족이아말로 아직도 이 사회에서 여성의 존재를 '종속적' 혹은 '하위적'집단에 묶어놓는 주된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반란 이후 그녀가 차지한 공간은 결코 그녀에게 정신적인 안식을 제공해주는 낙원이 되지 못했다. 남편을 비

롯하여 주위의 빗발치는 비난은 예상한 바였지만 뜻밖에도 그녀의 '개어남'을 도왔던 주변 여성들의 냉담한 반응은 그녀를 혼란에 빠지게 했다. 그녀들은 한결같이 그녀의 돈키호테식 행동에 미묘한 거부감을 보였다. '보다 온건한 태도'가 현명했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아들과 손자들을 내맡겨진 며느리에 대해 대노하는 시어머니보다 그녀의 비정상적인 결혼생활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정어머니의 태도는 그녀를 절망에 빠지게 했다. 집안 망신에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녀의 어머니는 '왜 내란이? 내란 유별나게 구느냐'는 것이었다. 그들은 '여자의 길'을 아무리 탐부림친다고 해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속명론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교육받은 정도에 걸맞게 간간히 걸쭉든 토론을 벌여가며 의식 깊숙히 내재화시키고 있었다. 더욱 암울한 사실은 '여자의 길'이 나무는 나무일 수 밖에 없는 자연법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사회가 주입시킨 이데올로기적 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이와같은 가장 가까운 동료 여성들의 발림과 더불어 속에서 그녀는 극도로 예민해졌다. 그리하여 '혼자만의 밤'은 그녀 홀로 고독과 공포와의 지난한 싸움을 벌인 격전지가 된 것이다.

김애주  
(문과대 영문과 강사)



문화단신

새 책 소개

◇내마음이 다 화사해지는 시 읽기...시인 오월수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삶의 이야기들을 쓴 생활 글과 서른 다섯명의 시인들의 시를 함께 소개한 책이다. 시집이나 시평본집의 성격도 아니며, 대학교문예에서 교양교재, 토론교재로서 쓸모가 있다고 한다. 도서출판 청년문예, 6천4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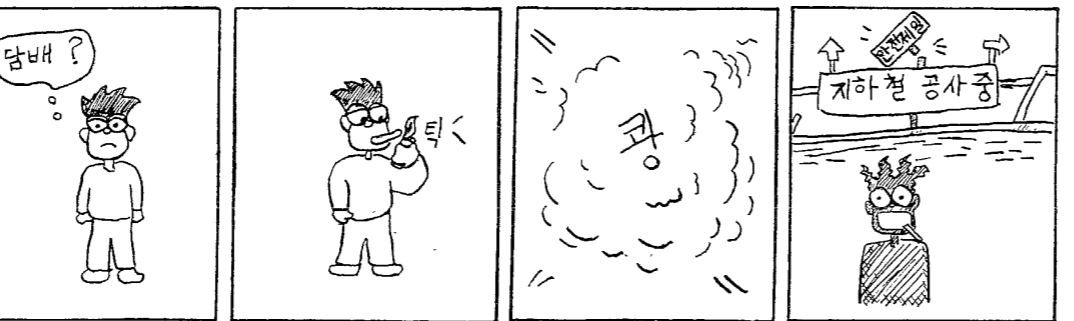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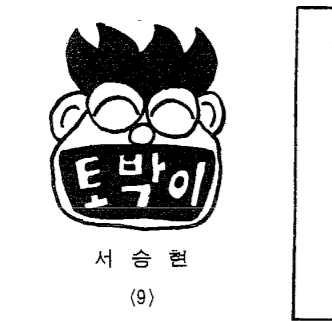
점령지 일본으로 돌아와 다시 미군정 당국의 명령에 따라 본국 송환을 기다리게 된 조선인 다섯 가족 수명명의 역경을 그린 소설이다. 사할린에서 일본 열도의 남방 고프터리에 있는 규슈하리오 섬의 송환자 수용소에 이르는 긴 여정이 소설의 배경·지음이 이회성은 사할린태생이며, 94년 노마문학상을 수상했다. 프레스북·6천원(2권)

수의 희곡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삭막하고 힘든 삶속에서, 지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초인(超人)은 인간이 지닌 본성의 또 다른 모습을 말하고 있다. 등장인물들은 바우사라는 초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극을 이끌어가는 주요 모티브가 되고있다. 5월11일까지, 동송아트센터대극장, 문의 763-1268

◇그래 우리 암살팀에 가자... 주인공 박장수의 의식을 크게 4등분하여 희망적 분신, 도덕적 분신, 이성적 분신, 낭만적 분신등을 증시킨다. 모노드라마지만 주인공의 감정상태, 갈등상황을 내분신이 다양하게 표현하여 단조로운 극복하고 있다. 박장수가 머리를 식히기위해 찾아가는 '암살팀'은 관객 스스로에게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작품은 '불꽃 꺼주세요' '폐지'와 '오트바이'등으로 유명한 이만희가 썼다. 10월4일까지 대학로 인간소극장, 문의 743-5002

공연안내

◇길...본교 연영과 안민수 교



▲적벽대전에서 크게 패한 조조가 수하 몇명의 군사만 수습한 채 뒤쫓아오는 적을 피해 간신히 한숨을 돌릴만한 곳에 이르렀을 때 쫓아왔다. '히하하...' 갑자기 조조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군사들은 의아한 속에서도 주장의 이런 호쾌한 웃음소리에 적장은 안도감을 느끼며 그 이유를 물었다. '내가 군사를 부렸다면 이곳에 군사를 숨겨 큰 난쟁이를 보게 했을텐데 공명과 주유의 머리 솟이 이정도도 이르지 못해 이를 비웃은 것이니라' 조조의 답변이었다. 그러나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공명의 명을 받고 숨어 기다리던 장비가 뛰어나와 조조의 남은 군사를 덮치는 대로 해쳤다. 조조는 여기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으나 살아 남은 후에도 두번이나 웃음을 지으며 공명을 비웃다가 그 때마다 조운과 관우를 맞아 큰 벌을 당하고 간신히 목숨을 구걸해 빠져나왔다.

그의 군사들은 세번째 그의 웃음소리가 들리자 이번에는 도망갈 준비부터 했다고 한다. ▲수심평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란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내놓는 무더기 대책들은 더이상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뭔가 크게 뜯어 고쳐줬다는 듯 이것저것 떠벌리 바쁘지만 눈고리고 아웅하는 식의 사건 수습에서 국민들의 본능적인 위함을 감지하고 있

는 것이다. ▲대구 가스 폭발 사고를 맞아 정치권은 분주하다. 그 여파가 언론에 까지 미쳐 TV방송사들은 사건 담담 생방송은 고사하고 아직 그 참사의 진실을 캐내기보다는 정부의 보상대책과 복구작업에만 카메라를 들이대는 데 급급하다고 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사건의 국회 제출을 끝까지 반대해 정국 파행에까지 이르렀다는 얘기도 들리고 공사 현장엔 위험한 교통운행을 필계로 사재발굴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장이 재활동(!) 복강관으로 덮혀지고 있다고 한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는 기분이다. ▲오늘도 우리의 수비는 TV에 나와 '라식'과 관성에서 벗어나 세계화... 하는 몇번은 벗어 붙지한 말만 영부새처럼 되뇌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조조의 난쟁이 생각나는 것은 정조지나친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수)

동국대학교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길러낼 훌륭한 스승을 모십니다.

1995학년도 제 2학기 초빙분야

서울캠퍼스		경주캠퍼스	
학과	전공 분야	학과	전공 분야
영 어 영 문	18세기 이전 영문학	불 교	◆선학, ◆정토학
중 어 중 문	중국어	일 어 일 문	일어일본학
전산통계학	전산학	전 산 통 계	전산학(알고리즘)
반도체 과학	반도체 물리학	경 영	재무관리(투자론)
경찰 행정	경찰학(이론 및 실무)	회 계	회계감사
신 문 방 송	매스컴 이론	관 광 경 영	관광경영학(외국인우대)
경 제	◆노동경제학(계량경제학 강의가능), ◆경제이론	정 보 산 업	정보관리학(재무, 전산처리 가능자)
무 역	국제경영(무역실무)	한 의	서울·한방내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부인과
회 계	회계감사 및 세무회계	의	경주: 한방병리학,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물리요법과
정 보 관 리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분야) 또는 시스템프로그래밍		인천: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1. 초빙인원 각 전공별 약간명  
2. 자 격 가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의학, 예능계열은 예외). 인문 예능계열은 1950년 9월 1일 이후 출생자. 사회 자연계열은 1955년 9월 1일 이후 출생자. (의학계열은 예외)  
4. 본교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구현에 동참할 분  
5. 제출서류 가 이력서.....2부 (전공분야 및 전과번호를 우측상단에 명기 명함판사전 부착) 나. 학위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각 1부

다. 경력 및 제직증명서(이력서상의 경력증명서 서류).....각 1부 라. 연구실적 목록(제목, 연구자, 발표지, 발표일자 명기).....2부 마. 연구실적물.....각 1면 (학위논문과 '예. 91이후발표된 논문 및 저서) 바. 임용후 수행한 연구계획서(4,000자 내외의 분량).....1부 사. 전문의 자격증사본(의학계열 지원자에 한함).....1부

4. 제출기간 및 제출처 가. 1995년 5월 22일(월) ~ 5월 24일(수) 17:00까지 나. 서울 및 경주캠퍼스 교무과(지원하는 캠퍼스별로 접수)

5. 기 타 가.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 나. 서류심사후 초빙예정자에게는 개별 통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서울캠퍼스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 260-3031 ~ 30341)  
경주캠퍼스 780-714 경상북도 경주시 석강동 707 (전화: (0561) 770-2031~20341)

본교의 건학이념은 불교정신을 통하여 지혜와 자비에 이거한 인간의 자기완성과 이상세계의 구현에 있다.

